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
 2015 INTERNATIONAL WOMEN'S GRAND MARCH FOR REUNIFICATION AND PEACE OF KOREA



남녀강산

8

주체104(2015)
 루게 제312호 월간

조선의 노래

아름답게

mp E^b

1. 아 침 의 해 빛 이 아 름 답 고 곱 다 고

A^b E^b B^b E^b

우 리 의 이 름 을 조 선 이 라 불 렸 네

mf E^b

이 처 럼 귀 하 고 아 름 다 운 내 나 라

A^b E^b B^b E^b

이 세 상 그 어 데 찾 아 볼 수 있 을 가

- 2. 3천리강산에 은금보화 넘치고
반만년력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간악한 왜놈들이 땅에서 내쫓고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
- 3.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차 례

- 조국해방 70년을 맞으며 -

애국으로 이룩하신 조국해방위업	3
대원들의 가슴을 울린 노래 《사향가》	8
각천가들의 대오	9
전민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리기 위하여	10
조선인민혁명군의 녀대원들	12
사연많은 뽕방아소리	13
수 필	
주작봉마루에서	14
전 설	
네해전의 예언	15
밀림속의 병기창	16
방문기	
《비참하면 해방전생활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오》	17



일 화	
선군의 이름속에 새겨지는 추억	18
핵전쟁의 참화를 막아주신 분	20

- 승리와 영광의 70년 -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21
금강체육인종합식료공장	22
이어지는 청년강국의 전통	24
관중을 매혹시킨 나얼린 《배우》들	26
《휘파람》가수	28
누구나 수영을 배운다	29



수 기	
평양산원과 불	31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여성들의 대행진	32
해방탑이 전하는 이야기	34



편 지	
보고싶은 동생에게	35
고향소식	
산 좋고 물 맑아 선경인가	36

조국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이 뿌리내린 곳 38

고국방문

조국에서 보낸 나날들 40

인상기

장군님생각으로 눈굽을 적셨다 42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조국 42

내 마음속의 금촉만년필 43

민족의 향기

《통장훈이야!-》 44

사 화

늡어도 마음은 늡지 않게 45



참판기

반만년민족사에 이룩어진 풍속을 더듬어 (3) 46

력사인물

의병장 김천일 48

강력한 국력의 상징 49

고려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50

민족의 자랑이며 존엄 51

선렬들이 해방위업에 몸바친것은 하나된 민족을 위해서였다 52



세월은 흘러도 침략자의 죄악을 지워버릴수 없다 . . . 53

무능이 몰아온 《빠라시대》 54

미국의 식민지 남조선 55

《우리는 99%이다》 56

조선속담 (린색) 25

상 식

8각13층탑과 4각9층탑 39

건강에 해로운 습관 몇가지 (2) 45

조선봉건왕조시기 벼슬하지 못한 량반들의 호칭 몇가지 . . . 50

유모아

리 유 48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4(1945)년 10월

-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

애국으로 이룩하신 조국해방위업

《조선해방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해방된 조국강산에 울려퍼지던 만세의 환호소리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을 일곱번이나 흘러보냈어도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조국해방이었던가.
당시 《평양민보》는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한 인민의 걱정을 이렇게 전하였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 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림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대군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다름아닌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였기때문이다. 그이를 모시어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하여 칠성관우에 올랐

-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

던 조국은 재생의 새봄을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새 세대 혁명가들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상비적인 무장력에 의거하여 피압박근로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였다.

하다면 무엇이 위대한 그이로 하여금 조국과 겨레를 위한 길에 나서시게 하였던가.

그것은 다름아닌 애국, 그이께서 지니신 가장 열렬한 애국심이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인 애국, 수령님께서 애국의 그 마음으로 누구나 내릴수 없는 용단으로 일제와의 무장항전을 벌릴 결심을 하시였다.

그이께서 식민지철폐에 묶이워 신음하는 인민

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그 모진 고난과 시련,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의 힘으로 과감히 헤쳐나가시여 결국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대군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일제가 항복하였다는 격동적인 보고를 받으시고 수령님께서서는 교시하시였다.

동무들! 방금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조건 항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것처럼 기승을 부리던 일제는 드디어 저들의 완전한 패배를 자인하고 우리앞에 무릎을 꿇었다. ...

항일혁명의 승리, 진정 그것은 반만년의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재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특기할 대사변이였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이 승리한 역사적사변이였다.

수령님께서 갖 창건된 무장대오를 이끄시고 남

만으로, 다시 북만으로 이어가시던 원정의 길이며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의 나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님과 동생, 삼촌을 잃고 빨찌산의 추도가속에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귀중한 전우들과 영리별하면서도 걸으시였던 항일의 그 나날을 정녕 잊을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두 나라의 지경을 넘으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애국의 맹세를 굳게 다지시였다.

그때로부터 장장 스무해! 그 애국, 애민의 맹세를 지켜 그이께서는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오시였다.

말과 글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파란만장의 로정에는 그이께서 《E. C》의 화불을 지퍼올리신 화전이며 길림, 무송, 교하, 할빈, 오가자, 산간마을 내도산부락 등에서 때로는 강낭지집 한

두점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때로는 머슴으로 가장하여 우물가의 얼음도 까시며 항일대전의 준비를 위하여 바치신 나날도 있었다. 그리고 북만원정과 고난의 행군 등을 거치시며 천고의 밀림에서 인간이 겪을수 있는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던 항일무장투쟁의 나날도 있었다.

항일대전의 장구한 기간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사선의 고비들은 애국이 체질화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참된 애국자가 아니고서는 죽음도 이겨내야 하는 그 판가리마당에서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끝까지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는 애국의 일념으로 그이께서는 천교령의 사나운 눈보라속에서 노래 《반일전가》를 창작하시여 대원들을



원췌격멸에로 불리일으키시였다.

하기에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은 한 재미동포언론인은 이루 말 못할 숭엄한 감정과 걱정이 가슴속에 차올라 회고록의 갈피에 쏟아지는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나날에 자주적립장, 애국의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자주는 그이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의 기치를 추켜들고 그것을 혁명의 원리로, 혁명방식으로 정립하고 구현하시였으며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소왕청 마촌에서 국제당파견원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선사람이 자기 당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지 않

는것은 조선혁명을 포기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 결방에서 눈치놀음이나 하며 꺾렁꺾렁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

참으로 그이의 이 교시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선사람들로 핵심을 꾸리고 그들을 묶어세워 당도 건설하고 조국해방위업도 이룩하겠다는 신념과 혁명의 주체, 조국해방의 주체는 자기의 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이라는 투철한 자주적립장이 밝혀져있다.

그이께서 지니신 자주정신은 조국땅 보천보에서 지퍼올리신 화불에도 그리고 무산지구전투의 총성들에도 어리어있다.

진정 수령님께서 간직하신 자주정신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정신이며 자주의 총대로써만 애국의 길을 참담게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이 항일무장투쟁이 확증한 진리이다.

주체32(1943)년 2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배후련합작전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해방3대로선을 제시하시여 전민항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올리신 수령님께서서는 최후결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에 토대하여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으며 8월 15일 조국은 해방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마련된 참된 애국의 전통은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락원을 펼쳐놓



조국해방을 경축하는 인민들



패망한 일제침략자들



았다. 자기 땅을 것처럼 가지고싶어하던 농민들의 세기적소원이 풀리였고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의 혜택아래 로동자, 농민, 녀성들 모두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전통은 계승되어야 더욱 빛난다.

수령님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애국의 숭고한 뜻은 김정일애국주의의 성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내 조국강산에 더욱 맥맥히 늘뛰고있다.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드시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애국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애국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정녕 쉽없이 솟아오르는 샘줄기가 땅속 깊은 곳에 시원을 두고있듯이,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의 생명력이 그 깊은 뿌리에 있듯이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모든 승리는 조선혁명의 역사적뿌리이며 피줄기인 항일의 혁명전통에 있다.

자기의 밑뿌리와 피줄기가 무엇이고 자기가 걷는 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풍파도 뚫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

애국으로 이어지고 애국으로 빛나는 조선혁명의 전통이 있어 우리 조국은 무궁토록 번영할 것이다.

본사기자 한신애

대원들의 가슴을 울린 노래 《사향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많은 노래를 지으시었고 즐겨부르곤 하시였다.

그런 노래들 가운데는 그이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도 있다.

조선혁명과 함께 탄생하였고 조선혁명의 머나먼 투쟁의 길에 숭고한 조국애를 불러일으키며 높이 울린 노래 《사향가》,

은은한 노래소리에 귀기울이면 생애의 마지막기 일군들앞에서 《사향가》를 부르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안겨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안으시고 정력에 넘치신 음성으로 부르신 《사향가》는 일군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마디마디에 사랑과 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피어린 항일의 나날 진달래꽃 핀 시내가에서 《사향가》를 부르시며 대원들의 가슴에 조국애를 심어 주시던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왔다.

주체25(1936)년 봄 조선인민혁명군이 만강에 머무르고있을 때였다.

숙영지를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은은히 들려오는 고향에 대한 노래소리에 이끌리어 개울가로 향하시였다. 그곳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한 녀대원과 함께 고향산천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시고계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동무들도 고향생각이 나는 모양이라고 하시며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향의 봄이 각별히 그리운 법이요, 우리 조선은 이맘때면 참 아름답소라고 추억깊은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압록강반에 남기고 조국을 떠나오신지도 어언 10여년, 강산도 변할 그 세월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조국이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는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자신의 고향 만경대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상하시였다.

봄이 오면 만경봉에 진달래가 붉게 피고 초가집 뜰안에는 복숭아꽃이 피는 4월의 만경대는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는 대원들의 가슴속에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이 안겨주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나직이 《사향가》를 부르시였다.

...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로 끓어번지게 하는 노래는 대원들의 가슴을 울리며 푸른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그이께서 부르시는 노래에서 대원들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떠나온 고향과 부모형제들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적시였으며 조국으로 돌아가는 승리한 래일을 그려보았다.

어찌 봄물이 오르는 만강의 시내가뿐이라.

때로는 달빛밝은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도 울린 《사향가》였다.

유격대원들은 《사향가》를 부르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고향땅을 반드시 해방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을 뿐아니라 만경대를 마음의 고향으로 간직하고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국내공작의 길에 멀리에서나마 만경대를 그냥 지날수가 없어 어은동의 나무에 《지척에 둔 만경대 바라보니 사향가 창가소리 들리누나》라는 심장의 글발을 새겨넣으리라.

《사향가》는 단순히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아니였다.

수령님을 항일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기어 이 일제를 쳐없애고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해갈 대원들의 맹세와 의지가 비긴 신념의 노래였다.

하기에 유격대원들은 그 노래를 심장에 안고 전투들마다에서 일제를 무찔렀고 마침내 어머니조국과의 뜻깊은 상봉을 안아왔다.

진정 《사향가》는 고향에 대한 추억의 노래인 동시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노래로 조국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락천가들의 대오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시련, 피어린 전투와 행군의 련속이던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은 더없는 락천가들의 집단이였다. 역경을 웃음으로 다스리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 세상이 통채로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는 락천가들의 대오가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였다.

그때를 회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빨찌산들은 헤아릴수 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 싸웠지마는 그들의 생활은 언제나 명랑하고 혁명적락관주의로 가득차있었다고 교시하시였다.

오늘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조선의 노래》, 《반일전가》를 비롯한 혁명가곡과 연극, 가요들을 친히 창작완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장투쟁의 그 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안에 락천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24(1935)년 겨울 제1차 북만원정의 나날에도 그이께서는 전투와 행군으로 지쳐버린 대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몸소 《반일전가》를 지으시였다.

사실 그때 그이께서는 혹한속에 촉한을 만나 심한 고열속에 계셨지만 《반일전가》를 구절구절 지으시여 쓰러진 대원들

을 일으켜 그들과 노래를 부르시며 엄혹한 난국을 뚫고나가시였다. 그때 유격대원들은 빼앗긴 나라와 신음하는 인민들을 생각하며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굴의 기상을 체험하면서 그이따라 변함없이 혁명의 한길을 꺾기지 걸어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더 가다듬었다.

그이의 슬하에서 육성되고 단련된 유격대원들은 일제와의 전투를 끝낸 다음에는 승리의 희열속에 한바탕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사기를 높이였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과 군민련환모임 등을 가지였으며 다채로운 체육경기와 오락회, 연예공연도 진행하였다.

주체28(1939)년 6월 옥돌골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였다. 여기서 이채로운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마을청년들사이의 축구경기였다. 장내에서는 연방 웃음이 터져올랐고 늙은이들은 옥돌골에 마을이 생긴이래 사람들이 오늘처럼 만가지 시름을 다 잊고 웃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였다.

이날 그네뛰기와 씨름경기도 대성황이였고 군민합동오락회와 연예공연도 재창, 삼창의 련발로 시간가는줄 모르게 진행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렇게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전투를 벌려가는 과정에 가사를 쓰고 노래도 지을수 있게

되였으며 그들 자신이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그것은 그대로 유격대원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일제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주게 하였다.

지금도 간삼봉전투때 울려 퍼진 《아리랑》의 노래는 조국인민들속에서 신념과 의지, 락관의 노래로 불리우고있다.

당시 일제는 보천보전투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대병력으로 유격대원들이 있는 간삼봉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매번 적들은 유격대원들의 불벼락에 얻어맞고 도망치곤 하였다. 악에 받친 일제는 또다시 공격을 시도하려들었다. 그때 유격대원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산고지를 쟁쟁 울리며 퍼져나갔다. 그러자 적들은 노래소리에 전율하여 공격할념을 못하고 주저앉거나 도망치다가 전멸당하였다.

격전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강자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간삼봉전투장에서 울린 노래 《아리랑》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신적종심을 비쳐보이고 락천성을 시위하였다.

참으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락천적인 생활과 투쟁기풍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게 한 백승의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용주

전민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리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업하신 부전령비밀근거지

얼마전 우리는 신흥지구혁명 전적지를 찾았다.

아름드리소나무, 잣나무, 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 지하혁명조직성원들의 회의를 지도하신 곳

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을 이룬 태고연한 숲의 바다에 둘러싸

인 부전령의 산밭들을 바라보

며 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독산기슭에 세워진 신흥지구혁명전적지 종합분포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신흥지구는 항일 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국내인민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에 불려일으키기 위하여 여러차례 진출하신 곳입니다. 신흥지구는 자연지리적으로 보나, 주민구성으로 보나 전민항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

다. 더우기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집중되어있고 일제의 군수산업중심지인 함흥, 흥남을 끼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지역을 혁명화하는것은 당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혁명전적지 종합분포도앞에서있는 우리에게 강사 박수정이 하는 말이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장골로 향하였다.

《백두산에서 신흥지구로 오려면 신흥군 영용리에 있는 금패령을 넘어야 합니다. 주체 26(1937)년 8월 도천리에서 공작을 마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민항쟁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령을 넘어 신흥지구로 나오시였습니다.》라는 강사의 해설을 통하여 우리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신흥지구에 비밀근거지를 튼튼히 꾸리고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할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신흥지구로 나오시여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들을 타개할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도 안겨주시였다.

골짜기가 하도 길어 장골로 불리운다는 장골회의장소에 이르니 부전령에서 내려부는 시원한 바람이 키높이 자란 나무가지들을 흔들며 삼복의 무더위에 한껏 달아오른 우리의 몸

을 식혀주었다.

력사적인 장골회의를 지도하시는 20대청년장군의 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우러르는 우리에게 보천보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연히 서시여 원쑤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라고 연설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되새겨졌다.

주체 27(1938)년 8월 장골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소부대,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신 수령님께서 혁명에서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길데 대한 연설을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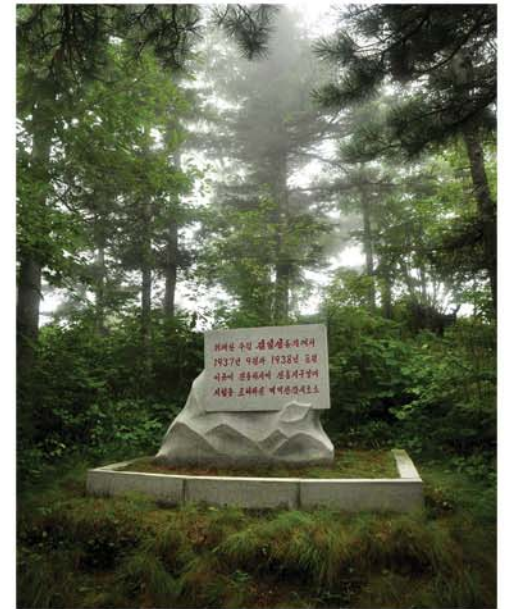
뒤덕봉밀영을 거쳐 백역산밀영으로 가는 수림속에서 우리는 유리함속에 보존된 《전민은 김일성대장만을 따르라》는 구호나무의 글발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이 어려있어 무심히 스쳐지날수 없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두차례나 나오시여 사업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14년전에 몸소 찾아주시신 백역산밀영에도 들러보고 거기에서 30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 두무봉밀영에도 가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32(1943)년 2월 바로 두무봉밀영에서 조국해방3대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에게 이번에 여기 두무봉밀영을 회의장소로 정한것은 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위한 주체적력량이 차라고있는것을 직접 보여주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시였다. 력사의 그날 수령님께서 신흥인민무장대의 실탄사격을 보아주시면서 이 무장대의 힘만으로도 신흥지구는 얼마든지 해방할수 있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신흥지구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흥지구일대의 지형을 료해하신 백역산감시초소

밀근거지는 전민항쟁을 위한 튼튼한 요새로 꾸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타오른 전민항쟁의 불길속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글 분사기자 윤영일
사진 조선중앙통신



신흥지구비밀근거지에서 발굴된 유물들과 구호문헌들의 일부



조선인민혁명군의 녀대원들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로정에는 녀성들의 발자취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사실 봉건적질곡에 의해 수천년동안 뒤고방에 갇혀있던 녀성들이 장기간 무장투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 거의 없었다. 녀성들이 집안일을 보고 남성들은 집밖의 일을 보는것이 조상전래의 관례였기때문이다.

그러나 항일의 녀투사들은 인도주의를 선사하지 않는 전쟁마당에서 남자들과 똑같이 무거운 장구류를 이고지고 며칠씩 강행군도 하고 언땅에 배를 붙이며 포화속에서 싸움도 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창격전에도 뛰어들었다.

주체25(1936)년 4월 만강부근의 수림속에서 탄생을 선포한 조선인민혁명군 녀성중대의 대원들은 대영전투와 동강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그중에는 어느 한 전투때 총알이 아까와서 적보초를 주먹으로 단매에 쳐눕히고 돌격로를 연 녀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어느 전투때 어스름한 달빛속에서도 각각한발씩 총을 쏘아 적의 경비전화선을 잘라버렸다는 녀대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하기에 조선총독부관하의 함경남도경찰부가 남긴 기록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부녀대원 박록금이하 40여명이 1936년 음력 5월 초순경 무송현 시냇가의 위

만군 수비대를 공격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같은 시기에 그들이 어느 한 곳을 습격하여 장총 10여정과 군복 등을 로획해갔다는 사실도 전해지고있다.

녀대원들의 혁명절개 또한 송축같았다.

적들의 그 어떤 고문과 위협에도 굴함없이 싸우며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최희숙투사, 온몸에 참나무말뚝이 박히는 순간에도 마지막힘을 모아 《조선혁명만세!》, 《녀성해방 만세!》를 부르짖은 안순화투사, 포위망을 좁히며 달려드는 적들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리다가 사로잡힐 고비에 이르자 목단강과 푸르허의 깊은 물에 뜻같은 몸들을 던진 안순복, 리봉선을 비롯한 8명의 재봉대원들과 동만의 7렬녀들...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절개를 지켜낸 녀성들의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그처럼 힘겨운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신념을 지키고 전투나 행군에서 남대원들 못지않은 녀대원들은 어떤 정황에서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인민을 도와주고 존대하였다.

그 녀대원들의 귀감으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서계시였다. 녀사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위해 주시였다. 먹을것이 차례지면 자기보다 체통이 크거나 나 어린 대

원들에게 덜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정숙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친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이였고 그가 걸어온 인생이었다.》고 회고하시였다.

지금도 전해지는 량민보증서에 대한 이야기는 녀사의 인간됨을 잘 보여주고있다. 도천리에서 지하공작을 하시던 녀사께서는 1937년 여름 적들에게 체포되시였다. 하지만 500명의 도천리마을사람들의 도장과 지장이 찍힌 량민보증서로 하여 녀사께서는 적들의 마수에서 무사히 풀려나게 되시였다. 만일 녀사께서 인민에게 참다운 사랑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돌아보지도 않았을것이다.

첫 녀성중대 중대장이었던 박록금도 혜산경찰서에 갇혀있다가 함흥형무소로 이송되었을 때 자기 한몸보다도 감방안에 있던 결핵환자를 정성껏 간호하여 그가 병보석으로 나가도록 도와주고는 그 병에 전염되어 옥중에서 눈을 감았다.

일제를 조국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생명도 청춘도 가정도 다 바친 녀투사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 유명무명의 녀성유격대원들, 그들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의 꽃이였고 민족의 자랑스러운 꽃이였다.

본사기자 엄향심

사연많은 물방아소리

독자들도 물방아소리를 들어보았는지.

조국이 해방 [주체34(1945). 8. 15.] 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골개물이 흐르는 곳마다에서 쿵-덕, 쿵-덕 하는 소리가 났는데 바로 그 소리가 물방아소리였다. 통방아로도 불리운 물방아는 물이 떨어지는 힘을 리용하여 낱알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내는 기구로서 그 소리는 농촌특유의 정서를 그윽히 자아냈다. 항일대전의 나날 그 소리에 많은 사연이 실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5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항일대전의 나날에 들던 물방아소리는 지금도 내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고있다. 그 소리와 더불어 수없이 많은 징백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그들중 교수대의 이슬로 시린진이는 멧이고 감방에서 숨진이는 열마인가.》

돌이켜보면 해방전 장백땅에서 울린 물방아소리에는 당시 그곳에서 살던 조선사람들의 원한의 한숨소리만이 실려있었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착취와 략탈로 하여 살길찾아 흘러간 이국땅에서마저 애써 가꾼 곡식을 다 빼앗기고 한 줌한줌의 밀이나 보리를 찢어 연명해야 했던 그들이였다. 그 고통이 오죽했으면 주체15(1926)년 3월 16일 《조선일보》에 실린 시 《물방아》는 당시의 시대상을 두고 찢구덩쿨- 찢구덩쿨- 물방아소리만이 밤하늘 공기를 무겁고 슬프게 흔들어 놓는다고 표현하였겠는가.

그처럼 맥없이 처량하게 울리던 물방아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주체21(1932)년 4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의 첫 주체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창건당시 반일인민유격대)의 탄생 후 더우기 혁명군의 백두산으로의 진출과 더불어 물방아소리는 사람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며 힘차게 울리였다.

주체25(1936)년 가을부터 장백사람들은 수십개의 크고작은 물방아들로 낱알을 찢어 며칠에 한번씩 원호물자운반대를 뚫고 혁명군을 찾아갔다. 그들은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원군길에서 서로 뒤질세라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산

나물, 산열매를 팔아 식량을 마련하기도 하고 피나무껍질을 벗겨 신을 삼아팔아 지하족을 장만하기도 하였다. 이에 바빠맞은 적들은 《공비에게 식량과 금품을 공급하거나 그와 련락을 취한 자는 통비로 인정하고 즉시 총살함.》이라는 경고문을 내돌리며 사람들속에서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마을을 불사르고 닥치는대로 잡아가고 죽이였다. 그리고 집단부락을 만들고 그 주위를 포대와 토성, 철조망으로 에워쌌다. 그러나 백두산으로 흐르는 인민들의 마음만은 가두어두지 못하였다.

장백사람들은 적들이 집을 불사르면 그 재를 쓸어내고 초막을 세우고 또 세우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녀인들은 주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겨울밤 강추위속에서도 불을 피우지 않고 보초를 서가며 방아를 짚었다. 그들은 혁명군을 돕는 길만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를 두고 물방아소리가 울리는 곳에는 언제나 투쟁이 있고 원군을 최상의 락으로 여기는 인민이 있으며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폭풍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조선의 넓이 있었다고, 물방아는 전인민적원군사업의 상징으로 자신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져있다고 회고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백현인민들의 원군사업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혁명군은 그 원군의 뒤받침을 받아 적과의 어려운 대결에서 백전백승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정녕 그 물방아소리는 70년전 조국해방의 만세소리를 안아오는데 크게 이바지한 인민들의 장엄한 북소리, 애국의 세찬 함성이였다.

항일대전의 나날에 울리던 물방아소리는 1950년대 미제침략자들과의 대결전에서 인민들이 전선을 원호하며 부른 전시가요 《적동령의 승리방아》에 이어 오늘날에는 군대는 전방에서 인민은 후방에서 내 나라 지키는 우리는 한형제라는 노래 《군민일치 노래부르자》에 이어져 더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정 린

수필

주작봉마루에서

얼마전 우리는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 해외동포들과 함께 혁명렬사릉을 찾았다.

한계단 또 한계단...

꽃다발을 안고 대성산의 주작봉마루로 오른 동포들은 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부각되어있는 공화국영웅메달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동포들은 그 공화국영웅메달앞에 향기로운 꽃다발들을 정히 놓았다.

이윽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언제인가 이곳을 찾았던 재로씨야동포 정 로라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 고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혁명렬사릉에 와보았다. 그때 이곳에서 받은 감흥이 참으로 컸다. 그래서 이번 방문길에도 또다시 여기를 찾게 되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꽃다운 청년과 귀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위훈은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애국애족의 깊은 뜻을 심어주고있다.》

우리는 그 말을 되새기며 동포들과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의 반신상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그들속에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한별을 웅위한 열혈의 혁명가들과 천교령의 눈보라며 고난의 행군을 비롯한 시련의 고비들을 헤친 투사들도, 원수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며 최후를 마친 녀투사며 조국해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투사도 있었다.

15성상이라는 긴긴 세월 높고낮은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조국의 해방을 위한 한길에서 아사, 동사, 타사를 각오하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나 글로써는 다 형상해낼수 없는 무수한 시련과 고초들을 달게 여기며 한목숨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

그들에게 항일혁명을 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었다. 또 그들이라고 따뜻한 구들우에 앉아 부모치자와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하는것이 좋은줄을 몰라서도 아니었다. 일제의 군화에 짓이겨져 고통을 당하는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되찾기 위해 침략자들을 맞받아 싸우는것이 떳떳하고 보람있게 사는 성스러운 길임을 자각하였기에 그들은 그 길에 서슴없이 나섰을뿐아니라 모진 고난과



전설

네해전의 예언

우리 조국이 언제면 해방이 되겠는가.

차피겨우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모여앉으면 저마다 늘 이렇게 속구구하며 이야기를 주고받곤 하였다. 그런데 그즈음에 마을에 떠도는 소리는 다 불길한것들뿐이었다. 1941년봄에는 쏘련(이전)과 일본이 화친을 하였다는 말이 돌더니 여름에는 도이쉴란드군대가 쏘련의 한 도시를 점령하고 그 다음날에는 또 어느 도시를 먹었다는 소리가 한입두입 건너다니였다.

마을의 좌상로인은 한숨을 쉬며 흥흥한 소문을 듣고보면 아마 당대에 고향땅에 가기는 틀렸다고 하였다. 한때 로씨야에 들어가 활동하다 마을에 와서 계몽활동을 하는 젊은이는 도이쉴란드가 땅크, 비행기로 무장한 170개사단의 병력으로 쏘련을 들이쳤으니 모스크바도 얼마 못 가서 먹히우게 될것이고 세계에 유일한 사회주의국가가 없어지면 조선독립은 힘이 들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조선독립이 10년후에 되겠는지, 20년후에 되겠는지 하며 갑자르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소부대를 거느리시고 왕청일대에서 활동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마을에 들리시였다. 마을사람들은 그이께 조선이 언

제 독립되는가고 말씀올렸다. 그들에게 복잡한 세계정세와 파시즘멸망의 불가피성,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과도 알려주시며 그이께서는 확신에 넘쳐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한 과학적인 예언이였고 또 기어이 그렇게 하고야말것이라는 확신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그때로부터 마을사람들은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3년째되는 해에도 해방은 오지 않았다. 실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예언의 마지막 4년째 해인 1945년 8월 정말 일제가 패망하였다는 소식이 마을에 날아들었다. 수령님께서 마을을 다녀가신지 네해만에 조국이 해방되었던것이다.

마을의 좌상로인이 사람들앞에서 무릎을 치며 말하였다.

《파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 분이 분명쿠나. 그렇지 았구서야 칠후같이 암담하던 그 세월에 어떻게 오늘을 내다보실수 있단 말인고.》

* * *

시련을 헤쳐가면서도 승리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더욱 깊어만 갔다.

오늘도 항일선렬들은 이 주작봉마루에서 혈전의 나날 심장속에 간직하였던 불굴의 신념으로 선군조선의 오늘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바라보고있다.

눈은 현실을 보지만 신념은 미래를 본다. 때로 목숨이나, 신념이나 하는 두갈래 길앞에서 자기의 신념을 지켜 둘도 없는 목숨을 주저없이 바친 그들이였다.

그들의 생을 어찌 값없이 산 백년에 비기랴.

하기에 주작봉마루의 영웅메달은 조국의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섰던 투사들의 가슴에서는 비록 빛뿌리지 못해도 그들의 영웅적위훈을 길이 전하며 조국의 인민들뿐만이 아닌 수많은 해외동포들에게도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을 변함없이 꿋꿋이 이어나가라고...

박금성

밀림속의 병기창

얼마전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은 우리는 해방후 조국의 로동계급이 자체로 만든 첫 기관단총 시험 사격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공업이 발전되었다는 몇개의 나라들에서만 만들수 있다던 기관단총을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 못내 기쁘시여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7(1948)년 12월 몸소 평천리(당시)에 있던 병기공장을 찾으시여 첫 기관단총 시험사격을 하시였다.

그날에 울린 총소리는 자력갱생정신의 승리의 고고성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울린 자력갱생의 메아리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선반이나 볼반 한대 없던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작탄도 만들고 권총과 보총, 탄알은 말할것도 없고 화약까지도 만들어낸 기적의 창조자들은 다름아닌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한 몸바쳐 나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였다.

그들은 특출한 재간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태반이 무기수리는커녕 쇠붙이도 얼마 다루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였다.

바로 그들이 모루, 망치, 집게, 메, 풍구, 줄칼 등의 철공도구들로 파손된 무기들을 수리재생하거나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 유격대와 반군사조직들에 보내주었다.

그때 병기창에서 만든 무기가운데서 이채를 띤것은 파손된 38식보총의 총신을 잘라서 외방으로

쏘게 만든 단발권총이였다. 이런 권총은 자위대원들이나 소년선봉대원들, 정치공작원들이 리용하였는데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병기창에서는 탄피들에서 퇴관을 뽑은 다음 새 퇴관을 끼우고 화약을 장약하는 방법으로 탄약을 재생하였고 화약도 자체로 만들었다.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만든 무기가운데서 가장 효과가 큰것은 작탄이였다. 순수한 손로동으로 만든 작탄이였지만 굉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기창대원들은 적들과의 싸움속에 병기창을 옮겨가며 일을 하여야 하였고 병기수리와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여야 하였으며 지어 두는까지 잃은 대원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비단 병기생산과 수리뿐아니라 항일혁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었으며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되었다.》라고 쓰시였다.

백두의 밀림속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이 창조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조국인민은 항일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해방후 자기 힘으로 기관단총을 만들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보기 좋게 꺾어놓았으며 오늘은 그 어떤 현대적인 무기도 자기의 힘과 기술로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을 가지고 반미대결전마다에서 패승을 거두고있다.

본사기자 정 린



유격대원들이 병기창에서 리용하던 도구들과 자체로 제작한 무기들의 일부

《비참하던 해방전생활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오》



손녀와 함께

조국해방 7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어느 일요일, 우리는 보통강반에서 증손자, 증손녀들을 데리고 유보도를 거니는 최병련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올해 95살인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정정하였다.

우리가 인사를 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좋은 세월을 만나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단명이였는데 나는 증손자들까지 보았소.》라고 하면서 휴식날인데 집에 들렀다 가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보통강구역 서장동 51인민반 20층 2호에서 살고있는 할머니의 집을 찾게 되었다. 마침 집에서는 딸, 사위들과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녀와 외손녀사위 등이 모여 할머니를 기다리고있었다.

《일요일과 명절날이면 온 집안이 이렇게 모여 장기와 윗놀이를 하면서 즐깁니다.》

넓고 시원한 응접실로 우리를 안내하며 딸과 딸사위가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어머니가 펴 정정하시지요.》라고 은근히 자랑섞인 말투로 묻는것이였다.

20년이상은 젊어보인다는 우리의 말을 듣고 로인은 《기자선생들도 알겠지만 그게 다 세월이 좋아서지요. 이렇게 경치좋은 곳에 지은 훌륭한 집에서 세벌, 네벌자식들까지 안아보니 정말 꿈만 같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모처럼 왔던김에 집구경을 하라고 하였다.

로인이 거처하는 방과 부부방, 아이들이 있는 방들이 다 아담하고 정갈하였다. 부엌과 세면장에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안내하던 로인은 《이렇게 훌륭한 집을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었수다. 나나 우리 자식들이 나라를 위해 무슨 공을 세운게 있소 아니면 나라를 찾기 위해 피 한방울 흘린게 있소. 옛날같으면 생각이나 할 일ियो. 비참하던 해방전생활이 지금도 눈앞

에 생생하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눈가에는 추연한 빛이 어리였다.

조국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아래서 신음하던 암담한 시기에 평안북도 룡천군에서 빈농민의 딸로 태어난 로인은 철들기 전부터 손에 장난감이 아니라 호미를 들고 부모들을 도와 농사일을 해야 하였다.

《난 9살때부터 마을에 있던 순사네 집 아이보개로 들어가서 별의별 천대를 다 받았소. 지금 사람들은 아마 그게 어떤것인지 잘 모를거웨다.》라고 하면서 로인은 그때 있던 눈물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벽일찍 일어나 불을 피워 물을 덥히고 동이를 이고 자기 키를 훨씬 넘는 물독에 물을 채워야 했으며 순사와 그 녀편네가 세면할 물을 떠놓고 그다음은 청소를 하였는데 이 모든것을 순사네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끝내야 하였다.

그리고 순사네 아이를 업고 돌봐야 하였으나 가만히 서서 아이만 볼 짬을 주지 않았다. 온갖 잔심부름과 일거리가 차례졌



노래를 부르는 최병련할머니

선군의 이름속에 새겨지는 추억

너럭바위우에서

주체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다.

그날 점심시간에 있는 일이다. 장군님께서는 식사장소를 부대안의 식당에 정하려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우리는 될수록 수령님 계시는 곳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개울너머 너럭바위우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였다.

이어 이미 준비해가지고 온 췌기밥으로 식사가 시작되였다. 한 일군이 장군님께 이번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나는 대학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것과 함께 군사리론에도 정통하고 수령님을 따라 인민군부대들을 돌아보면서 군대전반실태도 료해하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나라가 굳건하자면 군대가 강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우리 나라를 그 어떤 적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군사의 강국으로 만들 결심이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방금전 부대의 군인회관 정문채양우에 나붙은 구호

를 보시며 하신 그이의 교시를 다시금 새겨보았다. 그이께서는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것이 인민군대의 기본사명이며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의 핵이라고,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 교시는 그이께서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인민군대강화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신것으로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시였음을 알리는 력사의 선언이였다.

바로 55년전 그날로부터 그이의 선군혁명령도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오성산의 백선힌한굽이

주체87(1998)년 8월 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연지대에 자리잡고있는 오성산을 찾으려 하실 때였다.

그때 일군들은 그이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고지에 인민군군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최고사령관이 오늘같은 곳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령길을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결연히 차에 오르시였다.

차는 고지정점의 전방지휘소

를 향해 령길을 뚫아오르기 시작했다. 백선힌한굽이였다. 세찬 바람과 폭우, 사품치는 흙탕물에 씻겨 돌만 남은 길이어서 차는 연방 들추어댔다. 옆으로 눈길을 돌리면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내려다보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짱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이께서 타신 차의 다이아가 터져나갔다. 예비다이아를 바꿔끼우고 다시 전진을 하는데 몇굽이를 돌아 이번에는 차가 기우뚱하더니 낭떠러지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등골에 땀발이 돋는 그 순간 운전사가 조향륜을 잡아들려 다행히 차가 길우에 올라섰다. 그런데 얼마후 다른 다이아가 또 터졌다. 다시금 다이아를 바꿔끼우고 오르는데 차가 헛바퀴질을 하더니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차체에 어깨를 들이미시였다. 뒤따라 수행원들도 어깨를 들이미며 한치한치 차를 올려밀었다. 마침내 차는 전방지휘소에 이르렀다.

비물에 젖고 흙탕물에 얼룩진 장군님의 옷차림을 보며 전방지휘소의 군인들은 눈굽을 뜨겁게 달구었다.

동행한 일군들의 가슴속에서

는 이런 걱정이 고래쳤다. 수천수만리로 이어진 그이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이런 험한 날, 이런 위험한 순간이 천이던가, 만이던가...

비행사들이 뵈은 마지막모습

주체100(2011)년 12월 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함께 어느 한 비행부대를 찾으시였다.

장군님께서 출격명령을 내리시자 비행사들은 조종간을 억세게 잡고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장군님께서는 비행사들의 모습을 보아주시면서 훈련을 잘한다고, 맞다든 《적》들을 소멸하기 위한 기동도 잘한다고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비행사들이 초저공으로 《적》들의 지상목표를 단숨에 소멸해 버리고 불바다된 《적》진지를 향해 또다시 련속타격을 들이댈 때에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어보이시였다.

훈련이 끝난 후 그이께서는 비행사들을 몸가짜이 부르시여 그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비행사식당을 돌아보시였다. 취사장 조

리대우에 올려놓은 음식감들을 보시며 만족해하기도 하시고 통이 실한 배추와 무우를 보시면서는 겨울에 보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늘 시간이 모자라 바빠 사신 장군님, 현지도의 길에서 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실 때면 일군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량해를 구해달라고 당부하시던 그이께서 그날만은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나신듯 비행사들이 준비한 예술소조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공연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비행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부대를 떠나실 때에는 모두 건강한 몸으로 전투정치훈련을 더 잘하여야 하겠다고 당부하시며 비행사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비행사들은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며 장군님께 《최고사령관동지, 건강하십시오.》라고 아뢰였다.

하지만 멀어지는 그이의 모습이 다시는 뵈울길 없는 아버지의 마지막모습일줄 그들은 몰랐다.

* * *



는데 그 틈에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쌍욕과 매질이 안겨졌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역을 치뤄도 주는것은 뜨물이나 다름없는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들이였다.

밤이면 어머니를 그리며 홀로 눈물을 흘리였다. 그러니 학교에 갈 생각같은것은 꿈도 꾸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세월이야 너자들이 공부한다는것은 어디 생각이나 할 법이였소. 나도 공부는 고사하고 남의 집 아이보게나 하는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 나라의 덕으로 자기의 희망대로 돈한푼 내지 않고 대학공부를 하고 있지 않소. 우리 아이들도 그 품에서 자기의 소질과 희망대로 공부하고 나라의 중요초소에서 일한다오.》

할머니의 말을 긍정하듯 외손자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의 부모도 그래 저의 형제들도 돈한푼 내지 않고 대학공부를 하였습니다. 매부들도 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기관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며 손에 꼽아보기까지 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 생활은 말할것도 없고 내 운명도 아마 오래전에 잘못되었을 거요. 그래 난 자식들에게 행복하면 할수록 나라없던 지난날을 잊지 말라고 늘 말하군 한다오. 조국이 없으면 또다시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해야 하지 않소. 그럴수야 없지.》라는 로인의 말을 새기며 우리는 그의 가족과 집안을 다시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집을 나서며 오늘의 조국인민의 존엄과 행복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았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핵전쟁의 참화를 막아주신 분

미국은 지난 70년간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전쟁의 불구름을 항시적으로 몰아왔다.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작전 계획들을 여러번 보충완성하고 광란적인 핵전쟁연습들을 끊임 없이 벌리면서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핵폭탄투하연습까지 여러차례 진행하였으며 남조신을 거대한 핵화약고로 전변시키었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선군으로 마련된 공화국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선군으로 나라의 군력을 최대로 강화하여 조국땅에 밀려드는 핵전쟁의 불구름을 막아주고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도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찍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선군의 길을 걸으시었다.

나라의 군사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전연부대들의 전방초소와 감시초소, 민경초소도 찾으시고 각급 군사학교들, 항공 및 반항공군, 땅크, 해군부대 등 모든 군종, 병종의 부대, 구분대들을 불철주야로 찾으시던 그이이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던 그때, 민족의 대국상을 기화로 더더욱 악랄하게 감행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 여러해제 계속

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갈림길에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마음 속맹세를 가다듬으시며 끝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었다.

철령과 오성산, 1211고지와 351고지, 판문점과 초도...

최고사령부를 최전방에 두시고 대소한의 강추위와 삼복의 무더위, 폭우와 강설도 가림없이 인민군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아가신 장군님이시었다.

어느 한 구분대를 찾으시어서는 중대강화를 위한 묘술을 가르쳐주시었고 해군부대를 찾으시어서는 훈련을 통하여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귀중한 교시도 주시었으며 비행구분대를 찾으시어서는 비행기의 착륙훈련도 몸소 지휘해주시었다.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혁명령도에 의해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략전술, 필승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강군으로 강화되었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그 어떤 첨단무기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다. 조국이 오늘과 같이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는것은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결과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선군정치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정녕 선군이 아니였다면 삼천리강토는 이미 이라크나 이전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전쟁의 참화를 면치 못했을것이며 북과 남은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당해야 했을것이다.

그이께서 선군정치로 외세의 전진도발책동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마련해주시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가 수호되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북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독단과 전횡, 강권과 핵전쟁도발기도를 좌절시키는 평화의 보검이다.》, 《선군정치야말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하는 조선반도평화의 담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힘의 원천은 북의 선군정치》라고 장군님의 평화수호업적을 칭송하고있다.

지금 남조선과 세계 각지에서 일고있는 선군지지열풍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평화를 수호하신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분출이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선군절(8. 25.)을 뜨거운 감회속에 맞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민심은 천심이라고 세상에 민심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재물을 잃는것은 작은것을 잃는것이고 벼를 잃는것은 큰것을 잃는것이며 민심을 잃는것은 인생의 모든것을 잃는것이라는 말이 있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인민적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이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면 혁명이 전진하고 나라가 흥하지만 인민우에 군림하면 인민의 배척을 받고 자멸을 면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세계사회주의운동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조선로동당은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모든것을 인민에게 의거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여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성상 이민위천의 리념 밑에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당의 기본사명으로, 당건설과 당활동의 철칙으로 삼고 투쟁해오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여오면서 선군혁명로선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로선 그리고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과업 등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로선과 정책은 물론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비롯한 인민적인 시책들을 제시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치고 조국땅우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 사회주의만복의 아름다운 화폭을 끝없이 펼쳐나가고 있다.

지금도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온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

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짙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립장이 뜨겁게 어려있다.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살림집들과 거리들,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 육아원, 애육원들과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문화후생시설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날에날마다 새롭게 일떠서는 세계적인 기념비적건축물들과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은 모두 인민을 위하여 세워지고 인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빛을 뿌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에 의해 이루어진 위대한 창조물들이며 자본주의세계가 도저히 지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조국의 수천만 사람들은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마음속소원도 아픈 사연도 스스럼없이 죄다 아뢰고있으며 지어 나라앞에 죄를 지었거나 조국을 배반했던 사람들까지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따사로운 품이 그리워 끝끝내 조선로동당의 품에 다시 안기고있다. 이것이 바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인덕정치, 광폭정치가 펼쳐지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의 참모습이다.

하기에 오늘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내 심장의 목소리》와 같이 당을 신뢰하고 흠모하는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으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조국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 오로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고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세상에서 가장 인민적인 어머니당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심정룡



제를 풀어나가는것이라고 하였다.
 공장의 일꾼들은 기술자, 종업원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식료가공공업의 세계적 추세를 제때에 알수 있도록 과학기술학습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았으며 본보기식료공장들에 대한 참관도 자주 조직하여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있다. 이와 함께 제품개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한편 이 사업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고있다.

작업반장 조명옥은 말하였다.
 《지난해 우리 공장에서는 일꾼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집체적힘으로 70여가지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성과가 배로 확대될것으로 보고있다. 벌써 많은 시제품안들이 나오고있으며 시제품생산에 들어간것만 해도 수십가지나 된다. 완성된 시제품들은 인민들과 체육인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50여가지의 상표 및 포장도안을 창작한 기술준비원 한선경은 앞으로는 민족적형식을 갖추고 세계적수준에 도달한 도안이 완성될것이라고 하였다.

공장에서는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건물건설도 한창이었다. 이곳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국가에서 건설을 위한 역량과 자재보장 등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었다고 한다.
 주목되는 점은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연구사, 교원들이 공장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현대화사업을 구체적인 계획밑에 밀고나가 통합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원료투입으로부터 포



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공정들에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시킬수 있는 매 구성요소의 설비들이 제작되고있었다.

책임기사 신현주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와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관철과 조국해방 일흔돛,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관철을 위해 지금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목표를 높이 세운 우리는 당창건 일흔돛까지 공장현대화를 우리 식으로 완성할것이며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쟁력있는 인기제품들을 끊임없이 개발생산하여 뜻깊은 올해를 승리의 해,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금곶체육인종합식료공장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의 하나인 금곶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이 낱알이 자기의 면모를 달리해가고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꾼인 전옥순은 말하였다.
 《지난 1월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면서도 새 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금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과 생산공정을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으며 공장을 표준식료공장처럼 현대화하여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최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제품개발에서 자기들이 중시하는 점의 하나가 낱알로 높아가는 인민들과 체육인들의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의 기술력량과 생산자대중에게 의거하여 그 문



이어지는 청년강국의 전통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향진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조선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계승의 년대와 더불어 세대도 바뀌었다. 하지만 조선혁명의 첫 친구들에 넘치던 항일혁명선렬들의 넋과 정신은 오늘도 어디서나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에 떨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이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부위원장: 그렇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혁명선렬들에 의해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청년건설자들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 지침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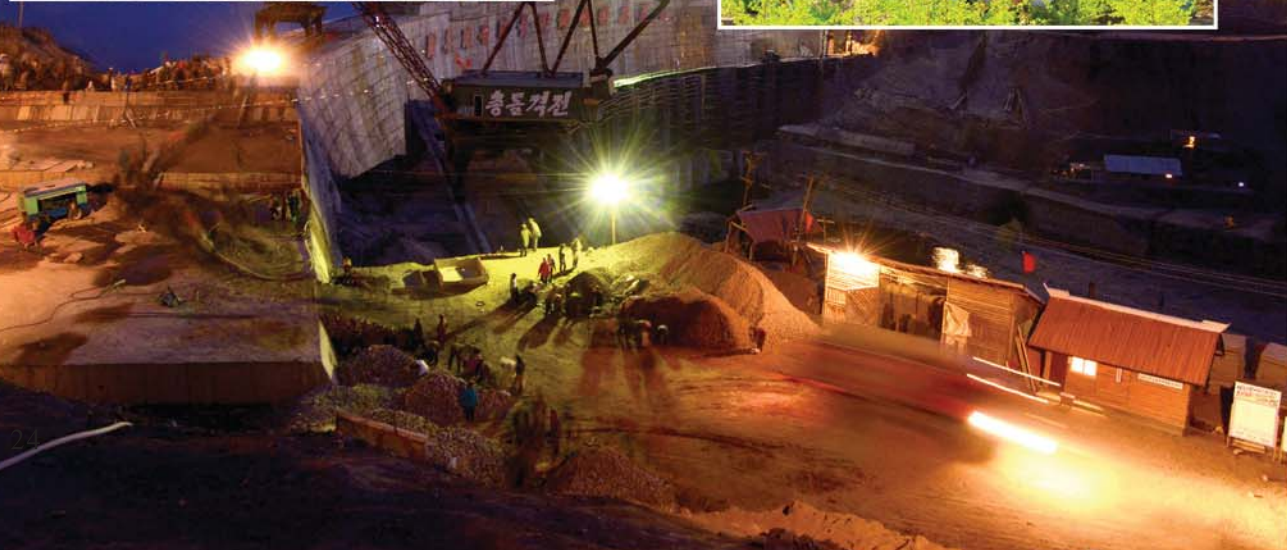
사실 해발 1 000여m나 되는 고산지대에서 서두수의 상류를 막아 3개의 발전소를 일떠세워야 하는 건설과제는 참으로 방대하다. 게다가 겨울의 강추위와 때없이 들이닥치는 폭설과 폭우를 동반하는 칼바람이 불고 지질상태 또한 화산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기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국의 청년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가장 힘들다고 하던 1호발전소 콩크리트언제공사를 다그치면서도 2호발전소 사석언제건설을 완전히 끝

내고 2호발전소 물길굴건설도 마감단계에서 진척시켜가고 있다. 청년돌격대의 구성상태를 보면 청년동맹일군도 있고 로동자, 농민, 사무원출신의 청년들도 있으며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원한 남녀청년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단련이 부족하고 건설경험도 없는 그들이지만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 시각부터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렬들처럼 살며 투쟁하고 있다. 병실을 하나 짓고 일과생활과 건설활동을 하여도 다 그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주체104(2015)년 5월 촬영



기자: 돌이켜보면 방대한 북부철길건설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청년들 역시 그렇게 살며 일하였다. 그들이 지녔던 불굴의 그정신세계와 투쟁정신이 오늘도 맥맥히 이어지니 조국의 앞날은 참으로 밝고 창창하다고 생각한다.

부위원장: 물론이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조선혁명은 여전히 간고하고 험난하다. 그러나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청년들이 있는 한 그 승리는 확정적이다. 여기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이 쓴 일기의 한토막이 있다.

《치열한 전투는 새벽 5시에야 끝났다. 봉락구간도 말끔히 치웠고 보강대책도 세워놓았다. 더우기 기쁜것은 굴진계획을 200%로 수행한것이다. 갭박에 나서니 긴장이 풀리면서 주저앉을번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환희에 넘쳐 웃었다. 굴진목표를 넘쳐 수행하지 않았는가. 동녘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아침해가 떠오르고있었다. 불쑥 눈시울이 뜨거웠다. 아,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곳! 나의 정든 일터와 동무들, 부모형제들과 보금자리가 있는 곳!

그렇다. 우리가 진행하는 굴진은 단순히 막장일이 아니라 원수님 가까이로, 평양으로 가는 길이다. 내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열백번 쓰러지면 천백번 다시 일어서고 설사 그 길에 내 생명을 바친대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

이것이 바로 청년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이고 삶의 목표이다.

지난 4월 백두산선군청년발

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이라는 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세운 위훈을 새로운 시대어로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지금 온 발전소건설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해갈 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불도가 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기자: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여오신 청년중시, 청년강국건설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계승발전하고있다는것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깃든 뜻깊은 사연을 통해서 더 잘 알수 있다. 이것은 현시기 《전략적인내정책》에 대하여 떠벌이며 우리 혁명의 새 세대들의 변질을 노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어리석은 망상이 어떻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한다.

부위원장: 지난날 조국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였던 일제가 백두산지구에 무진장한 나무를 비롯한 자원을 약탈할 목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가 백두의 칼바람에 얼이 나가 도망쳐버리었다고 한다. 그럴수밖에 없을것이다. 바로 그런 제국주의자들이 보는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기적을 우리 청년들이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련일 창조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조국의 최강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 * *

조선속담 (린색)

-고밭(감기)도 남을 안준다
지독하게 린색함을 비겨이르는 말.
-나 먹지니 싫고 개 주지니 아깝다

자기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으면서도 남에게 주기는 아까와 하는 린색한 마음을 이르는 말.

참고: 나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어렵다

-노루진 막대기 삼년 우린다
노루 때려잡는데 쓴 막대기를 고기냄새라도 날가 하여 삼년이나 썩어서 우려낸다는 뜻으로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을 두고 이리저리 여러번 써먹으려고 하는것을 비웃어이르는 말.

-기와장 하나 아끼다가 대들보 썩인다

장차 크게 손해볼것을 모르고 당장 물건이 아깝거나 돈이 좀 든다고 작은것을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르는 말.

-모기다리에서 꼬 빼먹겠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적은것까지도 린색하게 굶어들이는것을 하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부지집 띄개는 직다
낡은 사회에서: 부자일수록 더 린색함을 비겨이르던 말.

-손님(나그네)보내고 점심한다
원래 손님은 대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접은 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놓고 혼자 먹으려고 점심을 짓는다는 뜻으로 매우 린색하고 도덕이 없는것을 이르는 말.

-숯은 달아서 피우고 쌀은 세어서 짓는다

① 숯은 저울에 달아서 불을 피우고 쌀은 한알씩 세어서 밥을 짓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몹시 린색함을 이르는 말.

② 살림살이기풍이 깎이고 이익함을 이르는 말.

-한푼 아끼다 백냥 잃는다
적은것을 아끼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

-아끼는것이 찌로 간다

너무 린색하게 물건을 쓰지 않고 아끼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쓸모없는것으로 될수 있다는 뜻으로 너무 린색하게 굴지 말고 쓸데는 써야 함을 이르는 말.

* * *

관중을 매혹시킨 나 어린 《배우》들



김금송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시에서는 제25차 국제청소년예술축전이 진행되었다. 성악, 기악, 미술 등 여러 부문으로 진행된 축전에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300여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개막공연에서였다. 절정대목에 이르러 무대전광관에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발이 펼쳐지는 가운데 5명의 학생들이 출연하는 기악중주 《세상에 부림없어라》가 울리었다. 전자풍금과 타악기, 바이올린과 두대의 전기기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학생들, 그들은 기악중주에 이어 민족무용 《물동이춤》, 장고독주 《출전복을 올려라》 등 5개의 종목을 무대에 펼치였다.

그 종목들이 바뀔 때마다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특히 장고독주에서 민족옷차림을 한 남학생이 장새납을 분 후 상모(농악춤출 때 쓰는 모자)를 돌리며 기교춤을 추고 이어 1분에 200여회정도의 속도로 장고를 친 다음 타악기를 경쾌하게 칠 때에는 여기저기에서 탄사가 울



홍 룡

러나왔다.

이러한 화폭은 축전폐막공연에서도 펼쳐졌다.

축전이 끝난 후 장고독주를 한 학생에게 최우수상이, 그 외 4명의 학생에게 각각 1등상이, 그들을 지도한 교원에게 교육자상이 수여되었다.

그들은 평양에 있는 모란봉제1중학교의 김금송, 홍 룡, 리국향, 심철경, 김철미학생들과 교원 김현숙이었다.

그들에 대한 반향은 대단하였다.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은 매 학생이 두가지이상의 악기를 연주하며 무용까지 곁들여 펼쳐보이는 조선학생들의 공연은 관중을 완전히 매혹시켰다고 하면서 조선의 높은 예술교육수준, 훌륭한 교육정책을 엿보았다고 말하였다. 한편 관람자인 슬리네쯔까야 지아나는 개막공연때 우리 나라 학생들을 소묘한 그림을 학생들에게 안겨주면서 나 어린 조선의 《배우》들이 순식간에 자기의 명성을 떨치였다고 말하였다.

교원 김현숙은 귀국후 이렇게 말하였다.



리국향

《이번 축전은 <2015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새로운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그에 맞게 새로우면서도 민족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근 한달동안 창작완성하여 내놓았다.

축전에서 타악기와 바이올린을 연주한 홍 룡학생은 세점의 미술작품을 출품시켜 미술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그 학생이 그린 조선



심철경

화 <우리 장단 제일 좋아>에도 반영되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축전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우수성과 함께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세상에 자랑하고싶었다.》

모란봉제1중학교 학생들은



김철미

모란봉제1중학교 교원, 학생들은 각각 교육자상, 최우수상, 1등상을 수여받았다.



교원 김현숙

지난 30여년간 자기들의 학교를 참관하러 온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850여회에 달하는 공연을 진행하였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교원 전해영

《휘파람》 가수

《휘파람》 가수 하면 조국인민들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도 대뜸 전해영가수를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그는 노래 《휘파람》과 함께 인민들과 친숙해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천보전자악단 가수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은 전해영이 성대마비로 노래를 할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랐다.

지난 2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에 출연한 전해영(43살)의 말을 듣고서야 그것을 알았다.

경쾌하고도 발랄한 노래 《휘파람》과 《삐꾸기》, 《처녀시절》로 장내를 들썩이게 한 전해영은 무대에서 《...안타깝게도 1999년 그때부터 거의 5년동안을 저는 성대마비로 노래는 물론이고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전해영의 목소리를 꼭 고쳐주자고,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휘파람> 가수의 목소리를 찾아주자고 하시며 세상 최상급의 의료진을 무어주시여 제가 5년후에는 노래를 다시 마음껏 부를수 있게 해주시였습니다. ...》라고 걱정애 넘쳐 말하였다.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즐겨 부

르는 노래 《그 꿈을 못 잊어》를 불렀다. 가수의 눈가에서도, 관중의 눈가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노래는 관중의 심금을 짝 들어잡았다. 노래가 끝나자 관중은 그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으며 공연이 끝나기 바쁘게 그를 찾아와 처녀때보다 더 노래를 잘했다고, 《휘파람》가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그의 손을 놓지 못하였다.

관중의 절찬, 그것은 쉽사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전해영은 자기가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에 출연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걱정이 더 앞섰다고 한다. 10여년이나 무대에 서지 않았는데 과연 처녀시절 그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는가 하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는 공연관통시 자기의 노래를 록음잡아보고는 아연함을 금할수 없었다. 가사발음, 기량이 지난날에 비하면 한심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청춘기와 중년기의 차이로 여기었다.

그러던 어느날 집으로 퇴근하려던 그는 연습실들에서 울려나오는 플류트, 바이올린소리에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에 출연하여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가만히 문을 열어보니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곡실장 리종오가 플류트독주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입술에 물집이 생겼는데도 《삐꾸새》를 훌륭히 연주하고있었다. 일흔을 넘긴 나이에 좀 쉬면서 하라는 혜영의 말에 실장은 연주를 하면 할수록 위대한 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 잠시도 쉴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말은 다른 연습실에서 훈련하던 바이올린연주가 오필배로인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정말 로연주가들의 모습에서 그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밤잠을 잊고 다시 성악공부를 하는 심정에서 가사발음을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구절한구절 노래를 부를수록 위대한 수령님들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전해영의 성장의 수십년세월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이 수놓아져있었다.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들에 나가 1등을 하고 주체71(1982)년을 맞으며 진행된 평양시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 노래 《나는야 꽃봉오리》를 부르던 날들, 전문가들모두가 키가 작다고 도리머리를 저을 때 보천보전자악단의 가수로 불리우고 인민배우로, 《휘파람》가수로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인자하신 그 모습...

그분들의 자애로운 모습은 그대로 그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밤잠을 잊으면서 표준발음을 찾고 기량훈련을 하여 훌륭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도, 텔레비존에 마주앉은 사람들도 그의 노래를 들으며 장군님생각을 하였으며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전해영은 지금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성악지도 교원으로 일하고있다.

그는 13살난 딸 홍선아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노래는 입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불려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심장이 불타야 한다.》

본사기자 임향심

누구나 수영을 배운다

지난해 8월말 선군절(8. 25.) 54돏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대동강도하경기에서 선교구역 남신소학교 학생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마다 진행되는 큰 규모의 수영경기, 그것도 수백m에 달하는 대동강을 도하해야 하는 경기에 나아린 남신소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시범출연을 한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수영교육을 잘하고있는 비결을 알고싶어 이 학교를 찾았다.

수영장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 교원의 구령에 맞추어 수영기초동작을 열심히 익혀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학교에서는 수영을 대중화하는데 힘을 넣어 학생들을 수영명수로, 튼튼한 체력을 소유한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우고있다.

학교일군들은 교직원, 학생들속에 수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이 사업에 모두가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학생들이 각종 영법에 대한 기초기술을 원만히 소유하도록 하는데 교수의 중심을 두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가고있다. 수영장에 누운혜염, 가슴혜염 등 각종 영법들과 관련한 기초동작들을 보여주는 직관물들을 게시하고 진행되는 수영수업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김철혁교원은 학생들이 영법들의 자세와 기초동작들에 대한 표상을 잘 가지도록 자기가 직접 물속에서 헤기, 차기와 같은 동작들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기초동작들을 원만히 습득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학교수영장에서뿐아니라 대동강에 나가 학생들이 다양한 영법으로 수영을 능숙하게 할수 있도록 그들의 인내력과 담력을 키워주고있다.

호상경쟁속에 자주 진행되는 학급별, 학년별 수영경기는 학생들속에서 수영을 배우려는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결과 학교의 학생들은 구역적으로 진행되는 수영경기들에서 매년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으며 대동강도하경기에서 시범출연까지 하며



수영수업시간

시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학교로서의 자랑을 떨치고있다.

김영일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서는 7월과 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영을 배우도록 하고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하천이

문수물놀이장, 룡라물놀이장을 비롯하여 곳곳에 꾸러진 수영장파 물놀이장들에서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각계층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배우며 몸을 단련해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전룡진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대동강을 도하하는 선교구역 남신소학교 학생들

주체103(2014)년 8월 촬영



수 기

평양산원과 꿀

아름다운 문수지구에는 녀성들 누구나의 가슴속에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품으로 뜨겁게 새겨져있는 평양산원이 있다.

오늘 우리 산원에서는 조국의 녀성들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녀성들까지 친정집에 온것처럼 마음편히 몸을 풀고있다.

나는 평양산원 6산과에서 과장으로 일하고있다.

내가 평양의학대학(당시)을 졸업하고 갓 개원된 평양산원으로 들어서던 때로부터 어느덧 35년이 흘렀다.

그 나날에 내가 매일, 매 시각 느낀것은 우리 녀성들에게 돌려지는 조국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의사의 본분에 더욱 충실할 일념으로 언제나 가슴 불태우게 하였다.

평양산원에서 내가 체험한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는 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조선녀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몸을 푼 후에는 꿀을 먹었다. 산후에 허약해진 몸을 추세우고 젖이 잘 나오게 하는 꿀은 지금도 산모들의 산후몸보신에 으뜸가는 특효명약으로 꼽히우고있다.

꿀의 약효성분에 대하여서는 독자들도 다 잘 알고있을것이다. 꿀에는 과당, 포도당, 단백질, 유기산, 여러가지 광물질과 미량원소, 비타민, 카로틴, 디아스타제, 리파제, 항생물질, 호르몬 등 300여종의 물질이 들어있다.

개원후 첫 시기 산원에는 햇미역공급체계는 세워져있었지

만 꿀공급체계는 서있지 못하였다.

당시 산모들은 집에서 자체로 준비해온 꿀을 먹었다. 그런데 구급으로 산원에 실려온 임신부들속에서는 꿀을 미처가지고 오지 못하는 녀성들이 더러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는 산모들에 대한 꿀공급체계를 바로세워 산원에 입원한 모든 산모들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꿀을 공급받도록 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때부터 산모들을 위한 국가적인 꿀공급체계가 세워지고 산모들에게 정상적으로 꿀이 공급되게 되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주체74(1985)년 많은 량의 산꿀을 평양산원에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깃든 산꿀을 받아안은 산모들은 녀성들을 위한 훌륭한 병원을 마련해주시고 산모들을 위해 꿀공급체계를 세워주신것만도 고마운데 산꿀까지 보내주시여 정말 감사하다고, 이 크나큰 은정에 꼭 보답하겠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한해에만도 무려 세차례나 산꿀과 곰엿을 비롯한 귀한 약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꿀, 왕벌젓꿀, 삼지구엽초꿀, 아카시아꿀 등은 물론 녀성들의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희귀한 약재들을 보내주시였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



야 했던 것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평양산원으로는 산모들의 몸보신에 좋은 꿀을 비롯한 영양제와 영양식품들을 가득 실은 차들이 끊임없이 달려왔었다.

어머니들이 건강해야 애기들이 건강하고 애기들이 건강해야 조국의 미래가 담보된다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그 사랑을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더욱 뜨겁게 느끼며 사는 우리 녀성들이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 전체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녀성들이 누리는 복은 오직 인민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다.

나는 녀성들의 건강을 책임진 의사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어나가는데 이바지하겠다.

평양산원 과장 정량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여성들의 대행진

지난 5월 조국에서는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이 진행되었다. 30명으로 구성된 국제대행진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여성들과 해외동포여성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의 국제평화토론회 진행

그들중에는 1950년대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나라들과 또 조선반도를 제멋대로 갈라놓아 조선이 장장 70년동안 분열되어있게 하는데서 책임이 있는 나라들에서 온 여성들도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보장을 위해 조선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세계의 여성들이 자매들처럼 서로 손을 잡고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풀며 협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출정식에 앞서 국제대행진에 참가할 대표단 성원들은 평양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경상유치원, 옥류아동병원, 평양산원 유선 중앙연구소 등을 찾은 그들은 여성들을 가정과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내세워주고 있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들은 국제평화토론회와 조선여성들과의 상

봉모임도 가지었다.

국제평화토론회에서는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에 대하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단체들과 평화운동단체들의 투쟁에 대하여, 장구한 세월을 갈라쳐 살아온 조선민족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상봉모임에서 그들은 나라의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조선민족의 념원과 전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담아 색동천들을 잇는 의식도 가지었다.

5월 23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는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 출정식이 있었다.

평화단체 《피스 피플》창립자이며 노벨평화상수상자인 아일랜드의 매어리드 매파이어는 자기의 연설에서 조선의 여성들과 가정들이 조선전쟁과 전후에도 계속된 미국의 전쟁책동의 후파로 겪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에 대하여 진정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머나먼 행진을 시작하는 자기들에게 믿음을 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준 조선에 이번 여성대표단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는 가정에서 화목을 유지해나가는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자매로서 행진한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과거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정식에서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김정숙의 축하연설이 있던 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선언이 낭독되었다.

국제여성대행진 성원들은 여성취주악단의 《조선은 하나다》와 《통일렬차 달린다》 노래주악에 맞추어 행진을 시작하였다.

재미동포 박혜정은 이번 행진대오에는 비록 30명이 서있지만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조선여성들과 세계의 여성들이 함께 서있다고 하면서 통일의 길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개성에 도착한 국제여성대행진 성원들은 고려박물관, 왕건왕릉과 판문점을 돌아보고 군사



평양산원에서



판문점을 돌아보는 국제여성대행진 참가자들



국제여성대행진 참가자들 개성 통과

분계선을 넘어섰다.

국제여성대행진 성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앞으로도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갈 열의에 차넘쳐있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조선중앙통신



해방탑이 전하는 이야기

평양의 수려한 모란봉기슭에 붉은 오각별을 띄이고 높이 솟은 해방탑,

탑은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수난을 당하고있던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이바지한 쏘련(이전)군대의 위훈을 오늘도 전해주고있다.

탑을 돌아보느라면 주체34(1945)년 8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와 함께 조선으로 진격하여 일제를 때려부시던 쏘련군 장병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다.

지난 세기 중엽 파쑈도이칠란드는 일본과 이탈리아와 련합하여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썩웠다.

쏘련군대의 전격적인 투쟁에 의해 이탈리아와 도이칠란드가 항복하자 일본의 패망은 그

야말로 시간문제로 되었다.

동맹자들을 잃고 외토리가 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으나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의 강력한 반일항쟁과 태평양전선에서의 거듭되는 패전으로 하여 더는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었다.

1945년 8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쏘련은 동맹국들과의 협약에 따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대와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대는 라진, 청진과 원산 등으로 상륙하여 조선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항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뭉찌게 답새기였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대의 맹렬한 공격 그리고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전민항쟁에 의하여 결정적타격을 받은 일제는 최후공격작전이 시작된지 일주일만인 8월 15일 황급히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항복을 선언한 후에도 일제가 계속 발악해나서자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 장병들은 각지의 전민항쟁세력들과 협동하여 저항하는 일제침략군을 최종적으로 격멸소탕하고 적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빠른 시간에 조선의 해방을 결속하였다.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민의 감격과 기쁨을 기본주제로 하고 여기에 바쳐진 쏘련군 장병들의 위훈을 보여주는 해방탑은 조로친선을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하게 형상하고있다.

해방탑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조로친선의 기념비로 조선인민과 로씨야인민의 가슴속에 거연히 솟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려 해



중국 길림성 반석현 취재하진인민병원 허명애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동생, 그동안 잘 있었나. 내가 친척방문으로 길림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조국에 온 동생을 만나 회포를 나눈것도 어제런듯싶은데 왜 그런지 동생이 그리워지는구만. 그리고보면 나이가 들수록 세월도 한창나이때보다는 더 빨리 흘러갈뿐아니라 혈육의 정 역시 더 짙어지는것만 같소.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없어 궁금하오. 몹시 바쁠테지...

명옥, 명화동생들도 별고없이 잘 지내고있으리라 믿소. 명옥동생의 건강이 어떠한지 내 인사를 전해주소. 모두 보고싶구만.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잘 있소.

나는 아주 건강하오. 동생이 일전에 말하대 싶이 약보다 운동이 좋소. 안사람도 건강한 몸으로 자식들의 뒤바라지와 크고작은 가사를 다 돌보고있소. 그 사람이 수고가 많소.

현재 집에는 동생이 다녀간 후로 크게 달라진것이 없소. 여전히 맏딸 봄순이는 임가공사업소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고 둘째 봄실이는 신의주에 출가하여 잘 살고있네.

그리고 신의주농업대학에 다니는 아들은 이제 인츰 졸업하게 되오. 그 애가 향학열이 높고 탐구심이 남달리 강해 사회에 진출하면 부

강조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있소. 아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거요.

참, 봄순이네 부처간이 다 일하면서 대학공부를 하고있는데 모두 학과실력이 꽤찮은것 같소. 함께 공부하는 동무들이 칭찬하는걸 보아도 말이요. 몇년후에는 그들도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그 애들은 명절날이라든가 일요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에 찾아오곤 하는데 오면 의례히 동생에게서 온 편지들과 가족사진들을 보면서 그곳 이야기를 하곤 하오.

그러느라면 나에게서는 중국에서 흘러간 반석현 연통산중학교시절이 돌이켜지오. 동생도 알겠지만 그때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이여서 학생대장으로 선출되어 사업하였댔지. 그러나 내가 남달리 뛰어나 그렇게 될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저 이 국땅에서 조선사람의 본분을 다해가려는 마음이 남달리 뜨거워서였다고 생각하오.

이제는 그때로부터 5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모든것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히 기억되고있으니 그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오.

그 소중한것이 나에게 사랑이라고 생각되오. 다시말하여 그것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소. 동생도 마찬가지로 보오. 하기에 자식들에게 선조들의 태가 묻혀있는 교향에 대하여, 조국에 대하여 이야기해줄수 있었고 조국방문의 기회도 마련할수 있었다고 생각하오.

동생, 짧은 지면에 할 말을 다할수는 없고... 그래서 이만 끝맺으려 하니 상봉의 그날까지 건강에 특별히 류의해주길 바라오.

그럼 온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평안북도 룡천군 읍 15인민반 장우산



산 좋고 물 맑아 선경인가

얼마전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았던 우리는 한점의 그림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맑은 바다물속에 비낀 절벽과 무성한 소나무, 아득히 펼쳐진 바다와 멀리 점점이 떠있는 섬들...

여름철의 바다풍경을 그린 그 작품은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정관철의 대표작인 유화 《홍원풍경》이었다.

그 그림앞에서 우리의 흥심이 부풀어오른것은 단지 명화가의 솜씨에만 기인된것이 아니었다. 그림에 반영된 풍경은 다름아닌 우리가 지난봄에 다녀온 중국 길림성에서 사는 장수길동포의 고향인 함경남도 홍원군 읍지구앞바다의 모습이었던것이다.

홍원, 그 옛날 흥헌, 흥갱으로 불리운 이곳의 모습은 정말

화가들이 그림에 담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홍원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보면 동, 서, 북쪽은 해발 1000m를 넘는 산들로 이루어진 거두봉산줄기와 함관령산줄기로 막혀있고 남쪽은 조선동해와 잇닿아있어 기후가 비교적 따뜻하여 이곳은 농업과 어업을 동시에 하는데 알맞춤한 곳이었다. 거기에 나라의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홍원술도는 그 경치가 하도 뛰어나 한여름이면 먼곳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섬에 올라 쉼죽이며 조개구이를 곁들여 휴식하고있다.

그래서인지 홍원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먼 옛날 전설적인 신선들이 살았다는 선경에 비기고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귀전에 홍원땅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읍 35인민반에서 사는 오정애

로인의 이야기가 다시금 울려왔다.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태어난 내가 이곳에 살림을 펴놓은 지도 55년이 되었소.

내 살면서 보니 고향의 아름다움은 기후풍토나 산수의 경치에만 있는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로인은 홍원땅에 새겨진 근 한세기의 역사를 풀어놓았었다.

나라가 해방되기 전 홍원은 한적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탄압과 약탈행위는 이곳에서도 우심하여 홍원사람들은 땅과 바다를 리용할수 없어 살길찾아 고향을 떠났다. 오정애로인의 부모들도 그렇게 타향으로 흘러갔었다.

그러한 고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것은 나라가 해방된 후 부터였다.

사람들은 예속과 착취의 멍에

에서 벗어난 기쁨을 안고 집집의 살림을 꾸려나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여러차례나 고향을 다녀가신 후로는 서로의 힘을 합쳐 고향의 살림살이를 일신시키는데 떨쳐나섰다. 그들은 수령님들께서 교시하신대로 해안가에 부두와 방파제를 든든히 건설하였고 군안의 수산사업소를 활성화해나가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사철 바다를 비우지 않기 위해 배무이와 배수리, 물고기가 공을 위한 기지들을 하나하나 꾸려놓고 물고기를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잡았을뿐아니라 양식도 하며 군의 살림을 늘어나갔다.

그리고 논이 있는 곳에서는 벼농사를 알심있게 하고 산을 낀 곳에서는 식수사업, 집집승방목,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치좋은 자기 고향의 특색이 살아나도록 고향을 변모시켜나갔다.

그 과정이 험치 않았다. 읍지구를 완전히 일신시킬 목표를 내세우고 달라붙었지만 로력파

자재 등 그들앞에 제기되는 난관과 고충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자각한 그들은 물려섬이 없이 부단히 탐구하고 자원을 개발하여 군안의 화학공장에서 만들어낸 여러가지 색깔의 외장재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멋지게 단장하였고 자체로 생산한 세멘트로 대상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켰다. 살림집건설과 수도화공사, 군문화회관과 모든 편의봉사시설을 갖춘 은덕원건설, 로라스케트장과 아동공원꾸리기...

하여 오늘날 홍원은 도시부럽지 않은 살기 좋은 고향, 려

행자들속에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고향으로 꾸려지게 되었다.

오정애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제힘으로 가꾼 생활의 열매가 어디서나 풍성하게 주렁질 때 그곳이 바로 선경이 아니겠소.》

우리는 그 로인의 말을 되새겨보며 유화 《홍원풍경》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곳에 태를 묻고 지금도 향수에 젖어있을 장수길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영웅홍원고급중학교의 외국어강의실



홍원은하피복공장에서



그 사랑이 뿌리버린 곳

지난해 가을 어느날 황해남도 신천군인민병원으로 한명의 로동자청년이 구급으로 실려왔다. 그 청년을 후송한 사람들속에는 신천군량정사업소 진료소 소장 장량성도 있었다.

바로 몇시간전, 장량성은 사업소의 한 청년이 작업도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았었다. 그는 왕진가방을 메고 한달음에 현장에 이르렀다.

장량성이 생각하였던것보다 청년의 타박상은 치명적이었다. 1차적으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빨리 멈추어야 했다. 그는 침착하게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짧은 시간에 지혈을 시켰다.

신천군량정사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에게 바치는 그의 정성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언제나 체험하고 객관적으로 목격하기도 한다.

그는 얼핏 보면 평소에 말이 없어 얼굴에는 과묵한 성격이 그대로 내보인다. 그러나 로동자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흐르고있다.

우리 조국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서 사는것은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하지만 그는 사정이 달랐다. 그는 마치도 어둠속에 있던 사람이 해빛의 은혜로움을 더 잘 알듯이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인간을 세상에서 제



환자치료에 전심하고있는 장량성

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모든것이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폐부로 절감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의사라는 직업을 끝끝내 선택하였는지도 모른다.

주체54(1965)년 4월, 장량성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일군이었던 아버지의 유언대로 조국으로 왔다.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안해에게 꼭 조선에 가서 살라고, 량성에게 대학공부를 시키라는 말을 남기었던것이다.

혼다 쓰기오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녀성인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유언을 지켜 자기 형제들의 지킴은 만류와 우익적인 일부 사람들의 거둬되는 위협도 뿌리치고 결연히 자식들과 함께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올랐었다.

조국에서 장량성이 10살때 갑자기 안면신경마비에 걸린적이 있었다. 신천군 일군들과 마을사람들,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사람들이 떨쳐나 모두가 도와나섰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한달만에 깨끗이 완치되었다. 그뿐 아니라 량성의 누이도 일본에서 어릴적에 열병을 앓고난 뒤 시력이 떨어진 눈을 둔 한푼 내지 않고 치료받았다.

어린 량성의 가슴에는 이제 크면 아버지가 바

라던대로 꼭 대학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리라는 결심이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군사복무를 마친 후 희망대로 해주의학대학에서 공부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신천군량정사업소 진료소 소장으로 배치되었다.

그때로부터 24년세월 량성은 그 어떤 평가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자기 맡은 의료사업에 충신했다.

로동자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의 사랑은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갔다.

그는 진료소에 상비약품들과 구급약품들을 한 가지라도 자기 손으로 더 갖추어놓기 위해 애썼으며 주별, 월별, 분기별로 로동자들에 대한 정기검진을 간간히 하여 본인도 모르고있던 병을 찾아내어 제때에 치료해주었다.

그는 높은 의학실력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끝에 침, 뜸, 부항, 수법과 약물에 의한 고려치료를 위주로 하여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살펴주었다.

그리고 자체로 약초들을 심고 가꾸어 치료사업에 적극 리용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소안의 공로자, 혁신자들에게 갖가지 보약들을 만들어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곳 사업소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우리 진료소소장》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자기의 안락보다 로동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장량성의 사랑의 마음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상 식

8각13층탑과 4각9층탑

8각13층탑과 4각9층탑은 묘향산의 보현사에 있다.

8각13층탑은 고려말에 세워졌다. 화강석을 섬세하게 다듬어 13층으로 올려쌓은 탑의 총 높이는 10.03m(그중 탑몸의 높이는 6.58m)이며 8각형으로 된 밑단 한 변의 길이는 1.2m이다. 이 탑은 형식과 장식 등 모든 면에서 고려 말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탑의 아래 밑단은 바닥돌위에 3층으로 포개놓은 대돌로 되어있고

윗밑단 밑돌의 윗면에는 아래로 드리운 연꽃이 새겨져있다. 가운데 돌에는 모서리마다 모기둥을 돌렸으며 갑돌 밑에는 우로 피어오르는 연꽃이 새겨져있다. 탑의 맨 윗머리부분에는 청동으로 만든 탑머리장식이 있다. 8각으로 된 매 지붕돌의 추녀끝마다에는 바람방울(풍경)이 달려있는데 이 방울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방울



은 모두 104개이다.

4각9층탑은 만세루앞에 있다. 탑몸 첫층 뒤면에 새겨진 《보현사석탑기》에 의하면 처음 세운 년대는 1044년이다. 이 탑은 아래우밑단의 연꽃부각장식이 잘 되고 탑몸의 차례줄임이 특이하며 매우 장중한감을 주는것이 특징이다. 탑의 맨 밑에는 두층의 바닥돌을 깔고 그우에 너비 3.55m의 밑단을 두단 올려놓고 그 다음 갑돌을 씌웠다. 아래밑단 가운데돌에는 변마다 같은 크기로 3개씩의 연꽃이 새겨져있고 갑돌에는 돌아가면서 연꽃잎을 돌구어 새겼다. 윗밑단의 가운데돌 네면에는 커다란 연꽃이 하나씩 새겨져있다. 탑몸의 1층은 비교적 높게 하였으며 2층은 높이를 급격히 줄이고 3층부터는 완만한 차례줄임으로 줄였다.



* * *



귀국을 앞두고 니이가다항에서 (오른쪽에서 첫번째)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았다.

교국방문

조국에서 보낸 나날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은 하나같이 조국에서 보낸 나날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지난 4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성원들도 바로 그러했다.

만경대고향집,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하고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한 그들은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돌아보았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았던 심양시지부 지부장 권현은 《만경대고향집 프락에서 은은하게 울리는 〈시향가〉의 선율을 듣고보니 우리 수령님에 대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은 재중동포들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에서

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면서 눈물이 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입니다.》라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활짝 핀 김일성화들로 황홀경을 펼친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동포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시대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룡악산유원지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으며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도 관람하였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부국장 리설희동포는 《중국에서 텔레비존으로 공연을 보았지만 실지 보니 더 감동이 컸습니다. 자랑스러운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업적을 다시금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동포들은 여러곳에서 조국의 특산물들도 맛보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조국에서 보낸 나날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조국에 올 때마다 조국을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할가 하는 그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 보탬이 되는 일들을 더 많이 찾아하겠습니다.》라고 부의장 차상보는 강조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돌아보는 동포들





장군님생각으로 눈굽을 적셨다

이번 조국방문에서 제일 인상깊은것은 인민극장에서 본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이다.

그것은 공연의 주인공들이 20~30대의 가수들이 아니라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70~80대의 로가수들과 연주가들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자리에서 1970년대에 우아하고 세련된 연주와 재인 안삼블로 세계음악계에 《백설공주》로 널리 알려졌던 공훈녀성기악중주조 성원들과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수백여차의 공연회수를 기록한 공훈녀성중창조 성원들을 보았다.

그런가하면 1980년대의 그 이름도 정다운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당시)의 낮익은 배우들의 모습도 보았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들은 청춘의 기백에 넘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국한곡 다듬어주시었던 노래들을 무대에 펼쳐보였다.

누구나 공연을 보며 장군님생각으로 눈굽을 적셨고 그 시대의 흥분으로 가슴을 설레였다.

특히 1999년부터 5년동안 성대마비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던 보천보전자악단의 가수 전혜영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다시 목소리를 되찾고 부른 노래 《그 품을 못 잊어》는 만사람을 울리었다. 정말 나라일을 돌보셔야 하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한 가수를 위해 기울이신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것이다.

하기에 나는 눈물속에서만 이 공연을 보지 않았다.

눈물속에서 사랑으로 가득찬 우리 조국을 위해 나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는 결심 또한 다시금 가다듬었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허상숙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조국

조국방문의 나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루하루의 일정이 다 의의있고 재미났다.

특히 룡악산유원지에서 보낸 시간은 참으로 유쾌했다.

여러번 조국을 방문하지만 나는 룡악산유원지에 처음 가보았다. 룡악산이란 이름은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과도 같은 기묘한 생김새를 갖추고있다 하여 생긴것이라고 한다. 조국인민들의 말을 들으니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 유원지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시기 위해 심혈을 바치시였다고 한다. 정말 유원지의 조각 하나, 의자 하나에도 인민을 위하시는 그분들의 사랑이 짙게 어려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날 비가 좀 내렸지만 우리 마음은 뜨거움으로 가득차있었다.

유원지에서 나는 룡악산기술에 자리잡은 평양시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하고있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다시 아이가 되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조국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왕궁과도 같이 희한하게 일떠선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아이들의 궁전인 평양육아원, 애육원, 옥류아동병원 등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하기에 해마다 여름이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을 하고난 우리 동포자녀들은 다음해에도 또 조국에 야영을 가겠다고 떼를 쓰곤 한다.

정말 인민을 제일로 여기고 후대들을 위하는 조국, 이런 조국을 위하여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이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국장 동주봉



내 마음속의 금족만년필

아침마다 숙소에서 창문을 열면 봄향기가 풍겨온다. 그럴 때면 나는 이름할수 없는 향수에 젖어들곤 한다.

언덕위에 울긋불긋 피어난 진달래며 개나리, 복숭아꽃, 살구꽃 등을 바라보느라만 노래에 나오는 꽃동네의 정서가 가슴에 넘쳐흘러 나는 여든을 눈앞에 둔 나이에 가요 《고향의 봄》을 조용히 불러본다.

노래에 나오듯이 봄이면 꽃속에 묻힌 동네, 소꿉동무들과 그속에서 놀던 때가 정말 그림다.

이렇게 고향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60여년전에 헤어진 어머니의 정다운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온다.

나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이다.

일제의 발굽밑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야만 했던 조선사람들속에는 우리 부모도 있었다. 찌지게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인 나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참으로 컸다. 나는 부모의 일손을 도와 굶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하여야 했다. 손아래로 줄줄이 달린 다섯명의 누이동생들까지 돌봐야 하는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 꼭 대학공부를 하여 큰사람이 되라는 부모의 뜻을 안고 향학열에 불타있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나에게도 대학에 갈수 있다는 희망의 나라가 활짝 펼쳐졌다.

어머니는 그런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네가 대학에 가면 내 꼭 금족만년필을 사주마.》

그 말이 너무 기뻐서 나는 어머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에 뒤이은 미제의 원자탄위협공같은 우리 가정에도 눈물겨운 비극을 몰아왔다.

어머니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외아들인 나만이라도 꼭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하여 나는 정든 고향에 어머니와 어린 누이동생들을 남겨두고 아버지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곳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후 가족들을 데려오자던 우리의 계획은 풍지박산이 되었다.

나는 남조선의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구두닦기, 신문팔이, 담배장사 등 별의별 일까지 다 하여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대학에 갈수만 있다면 그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미국으로 건너가 안면이 있던 사람의 도움으로 대학공부까지 하게 되었다. 나는 열심히 전기공학을 연구하였으며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안고 모든것에 도전하였다. 어제날 약소민족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우리 민족이 반드시 자기의 두뇌로 당당히 세계무대에 올라서야 한다는 야심은 나로 하여금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였다.

더불어 그것이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나는 늘 어머니가 그리웠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달이 가고 해가 흐르자 통일의 열망으로 더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고향을 떠난 때로부터 근 40년만에 나는 처음으로 고향을 찾았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이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켜 금족만년필을 사주며 눈물을 지을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질줄 몰랐다.

시련의 날 자기만 살겠다고 고향을 떠났던 불효막심한 이 아들을 고국은 따듯이 품어안아 주었다. 나는 혈육들을 만났다. 한점의 마음속그늘도 없이 희망대로 대학공부도 하고 행복하게 지내고있던 다섯명의 누이동생들과 가족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런데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 오빠에게 대학에 가면 금족만년필을 꼭 사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하였다고 한다.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이 아들의 훌륭한 장래가 한생의 념원으로 간직되어있었다.

다섯자매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볼 때마다 남쪽땅으로 떠나보낸 한 자식의 운명을 지켜주지 못해 한생 괴를 끓이며 통일, 통일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애타게 바랐을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소원이 담긴 금족만년필은 받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단순히 종이우에 글을 쓰는 필기도구가 아니라 크나큰 뜻으로 마음속에 새겨안았다.

그 뜻은 어머니와 나만이 아니라 분열된 조선민족의 아픔을 가시는 통일뿐이라는것이다.

나에게 인생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없는 누이동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 내세워준 고국에 진 빛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분열된 조국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통일을 위한 길에 서있겠다.

2015년 4월 평양에서 재미동포 김정식

《통장훈이야!-》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룩두지집만들기로부터 시작된 《민족의 향기》란은 수정과, 쉬움떡만들기, 우리 민족의 결혼풍습 등에 이르러 어느덧 8번째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번호에서는 장기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장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반기는 분들이 남승들일것입니다.

한여름철 서늘한 나무그늘아래서 훈수군들에게 둘러싸인채 《장훈!-》, 《명훈!-》 하며 승벽내기로 장기를 두는 모습은 그야말로 멋들어진 풍경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발한 수로 《궁(왕)》을 오도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통장훈 받아라!-》 하고 흐뭇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수만 물리자고 사정사정하는 사람, 주객이 전도되어 장기상대들보다 더 열이 올라 훈수하는 사람, 다 이긴 장기였는데 훈수군들 때문에 졌다고 아쉬워하는 사

람... 그야말로 천태만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기에 이를 두고 예로부터 《장기훈수는 뺨을 맞아가면서도 한다》는 속담도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장기는 우리 민족이 즐기는 대중적인 지능겨루기놀이의 하나인 것입니다.

장기는 직관적으로 볼 때 간단하면서도 매우 명백한것이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장기판은 보통 가로 70cm, 세로 60cm정도의 나무판에 가로 10줄, 세로 9줄이 그어져있습니다. 장기쪽은 흔히 8각형의 나무토막에 글자를 새겨 만드는데 예로부터 고향나무쪽을 제일 좋은것으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장기쪽은 《청편》과 《홍편》으로 갈라볼수 있는데 《청편》에는 푸른색(혹은 검은색)의 글자가, 《홍편》에는 붉은색의 글자가 찍여져 있습니다.

장기는 두사람이 각이한 이

름이 새겨진 16개씩의 장기쪽(말)으로 상대방의 《궁》을 누가 먼저 거꾸러뜨리는가를 겨루는 방법으로 합니다.

장기쪽은 보통 나이가 어린사람이 붉은색쪽을,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 푸른색쪽을 가지는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장기쪽은 량편이 똑같이 배치할수도 있고 《말》과 《상》의 자리를 엇바꾸어놓을수도 있습니다. 《말》을 량편 제일 안쪽에 놓고 두는것을 《량기마장기》라고 하고 《차》를 제일 안쪽에 놓고 두는것을 《기동차》라고 합니다. 장기쪽을 배치한 다음에는 《약자선수》라고 실력이 낮은 사람이 먼저 둡니다.

매개 장기쪽들은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일수 있습니다. 《궁》과 《사》는 궁역안에서 그어진 선을 따라 한개의 교차점으로 움직이고 《차》는 빠른 기동으로 가로, 세로, 직선으로만 움직일수 있습니다.

《포》는 쪽을 하나 건너뛰며 직선으로 움직이는데 《포》와 《포》끼리는 뛰어넘을수도 잡을수도 없습니다. 《말》은 두칸씩 움직이는데 첫칸을 직선으로, 두번째칸은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상》은 세칸씩 움직이는데 첫칸은 직선으로, 두번째와 세번째칸은 대각선으로 움직일수 있습니다. 《졸》은 앞과 옆으로만 한개의 교차점씩 움직일수 있습니다.

장기는 체계와 두는 방식이 다종다양하며 수법들이 독특합니다. 장기는 크게 진지차지단계, 공방단계, 결속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적용되는 기술적수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게

양주에 황린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그가 천살이 넘었을 때 집둘레에 어린 잣나무를 심었다.

지나가던 이웃의 한 동갑이 그것을 보고 조소하였다.

《자네 벌써 로망하는게 아닌가?》

《왜?》

《하필 제일 늦게 자라는 잣나무를 심을게 뭔가? 언제 그 덕을 보겠대구.》

《별걱정을 다하누만. 자넨 옛말을 듣지 못했나? 바늘을 만들겠다고 쇠공이를 갈고 산을 옮기자고 팽이질을 했다는 말을 말일세. 나이가 늙어간다고 스스로 제 할 일을 안한다면 쇠공이로 바늘을 어찌 만들며 팽이로 산을 어찌 옮기겠나. 실사 내가 이 잣나무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자손들이 덕을 볼게 아닌가.》

잣나무를 심고 하루같이 가꾸던 황린이 나이 팔십에 이르렀을 때 잣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었다. 그는 물론 그의 자손

들이 잣을 따먹게 되었을뿐 아니라 이웃에서도 깊은 산에 오르지 않고도 잣을 먹을수 있게 되었다. 이웃에 살던 동갑이의 손자들도 잣을 따먹으러 왔다.

황린은 그 손자들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하였다.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서 잣을 따먹는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

《우리 할아버지는 명이 짧은 분이였으니 어찌 보실수 있었겠나이까?》

《너희 할아버지는 명이 짧은게 아니라 제명을 재촉하신 거란다.》

《예?》

《사람이 늙는다고 의기를 떨구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 장애가 길지 않을뿐 아니라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도 아무런 리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법이란다. 너희들은 앞으로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늙지 않게 살아가거라.》

* * *

법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 다. 그래서 《장훈 한번에 열 두수 얻는다.》는 말도 있고 또 장기실천에서 《한수때문에 졌다.》고 하는 말에 《그 한수를 따르자면 몇년이 걸려야 한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기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즐겨 놀수 있고 지혜를 겨루는 좋은 놀이 일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력을 계발시키며 생활을 즐겁게 해주

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언제나 민족의 우수한 미풍양속을 굳건히 이어나가고계실 동포여러분들도 민속명절이나 휴식일이면 의례히 장기나 윷놀이같은 민속오락들을 하시리라 봅니다.

그럼 오늘 장기경기에서 《통장훈》으로 상대를 이길 분의 모습을 그려보며 글을 마치렵니다.

본사기자

건강에 해로운 습관 몇가지 (2)

⑥ 손톱을 깨무는 습관

이와 같은 악습은 흔히 어릴 때 부터 습관되어온 버릇으로서 손톱을 빨거나 깨물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병균이 입안과 몸안으로 들어가 입안병과 소화기병이 일어나기 쉽다.

⑦ 손가락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며 손가락관절을 꺾어 《딱, 딱》 소리를 내는 습관

이런 버릇이 오래 지속되면 염증이 생기며 손가락의 기능도 점차 약해져 힘을 줄수 없게 된다.

⑧ 눈을 비비는 습관

버릇처럼 눈을 때없이 자주 비비면 손에 묻었던 병균이 눈에 들어가 눈병을 일으킨다. 그 발병률은 거의 80%이다. 다래끼가 나는 현상도 이와 적지 않게 관련된다. 눈이 간지럽거나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에는 깨끗한 손수건을 쓰며 눈약을 넣는 방법으로 티를 꺼내야 한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⑨ 눈을 찌프리고 보는 습관

눈을 찌프리고 보면 눈주위에 주름살이 인차 생긴다. 그리고 눈근육이 인차 피로해져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뿌옇게 보인다.

⑩ 가려운 곳을 오래 긁는 습관

어떤 사람들은 일단 가려운 곳이 생기면 온 정신을 거기에 집중시켜 정신없이 오랜 시간 긁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가 별경게 살아나 상처가 생겨 신경성피부염이 일어난다. 가려움을 없애자면 세수비누로 씻거나 크림을 쓰며 해당한 연고를 바르는것이 좋다.

* * *

반만년민족사에 이루어진 풍속을 더듬어 (3)

- 조선민속박물관을 찾아서 -



조선봉건왕조시기 교육기관들에서 쓰이던 도구들

참관자들은 다음호실에서 글 배우기풍습을 보았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우리 선조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벌써 글자를 만들어 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단군조선시기에 민족 고유의 글자를 창제하고 문명생활을 개척하였는데 그것은 《녕변지》에 실린 16자의 글자실체와 신지글자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고대시기에 천문학과 산학을 연구한 자료, 고조선시기에 《박사》라는 벼슬이 있어 과학과 문화, 교육사업전반을 맡아보았다는 자료와 삼국시기에 글배우기가 더욱 일반화되고 교육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발전하였다는 자료, 고구려시기에 민간교육시설인 경당과 중앙의 태학이 있었고 신라에는 국학, 백제에는 사도부라는 교육행정기관이 있었으며 교육을 중시한 고

려시기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한 해설은 참관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주었습니다.

더우기 《훈민정음》(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라는 뜻)과 같이 발전된 글자가 창제된 사실은 선조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알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관자들이 개성시 송악산 동쪽기슭에 위치한 고려성균관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앞에 이르자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려성균관은 봉건관리들을 양성할 목적밑에 992년에 세워졌는데 세계적으로 대학의 역사가 제일 오래다는 이탈리아의 볼로냐종합대학이 11세기경에 창립된것을 보면 고려성균관은 그보다 근 100년이나 앞서 창설되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교육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더욱 정비강화되었습니다. 승양서원과 가난한 집에서 글을 배울 때 쓰던 분판과 사판, 신라의 경주에 있는 첨성대, 천상열차분야지도, 1441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측우기 등 선조들이 창조한 수많은 과학기술적재부들을 참관자들은 흥미진진하게 돌아보았습니다.

호실에 전시된 종이, 붓, 먹, 벼루, 연적, 서사가구 등 서사



종이, 붓, 책의 종류

도구들도 우수한 글자를 창제하였으며 배움에 대한 높은 열의를 가지고 인류문화사를 빛나게 장식한 선조들의 재능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였습니다.

참관자들이 강사를 따라 다음호실에 들어서니 거기에서는 생일맞이와 결혼, 제사, 인사례법, 가족친척관계를 비롯한 가정생활풍습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것은 첫돌맞이풍습이었습니다. 첫돌때에는 어린이들에게 옷을 곱게 해입히고 큰상을 차려주었는데 상우에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들과 쌀, 돈, 활, 책, 붓 등을 놓고 어린이가 무엇을 쥐는가에 따라 그의 재능과 앞날을 예언하였으며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것을 념원하였습니다.

혼례풍습도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혼례는 가정에서 제일 크게 지낸례식의 하나입니다. 혼례에 앞서 먼저 판례와 계례를 하였습니다. 판례는 남자가 어른으로 되는 의례를 말하고 계례는 여자가 어른으로 되는 의례를 말하는데 남자들은 상투를 틀었

고 여자들은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혼례는 아주 간소하게 하였습니다.

고구려시기에는 친척들이 모여 상하나 차려놓고 술잔 돌리는것으로 혼례를 끝냈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품성과 생활감정, 부부가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아름다운 미풍량속은 혼인풍습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습니다. 남자집에서는례장함에 옷감을 넣어 여자집으로 보냈으며 여자는 시집갈때 새살림준비품인 자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장모에게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드리었다고 합니다.



신부옷차림

한쌍의 닭을 놓았으며 결혼식날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여자는 칠보단장을 하였습니다.

참관자들은 신부가 시집갈때 타고가던 가마며 지방별에 따르는 신부들의 옷차림에 대하여 보았으며 잔치후 신부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폐백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혼인풍습과 함께 의례도 있는데 의례에는 환갑(생일 60돛)과 회혼례(결혼 60돛)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사가 나면 이웃끼리 계를 못하고 호상부조하는 풍습,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법, 가족친척관계를 비롯한 가정생활풍습도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어린이를 사랑하고 늙은이를 존대하며 우애심이 깊고 이웃들사이에 서로 도와주면서 의종게 지내는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지닌 우리 인민의 모습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첫돌

의병장 김천일

김천일(1537년-1593년)은 임진조국전쟁때 왜적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의병장이다.

자는 사중, 호는 건재, 시호는 문렬이다. 사헌부 지평, 부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1592년 4월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침입하자 그는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해 6월 전라도 라주에서 의병대를 조직하였으며 봉건정부로부터 판결사의 벼슬과 창의사의 칭호를 받았다.

그의 의병대는 7월 북으로 진격하여 정부군의 한 부대와 함께 서울을 탈환할 목적으로 수원 독산성에 자리잡고 주변의 적들을 기습소멸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금령(룡인지방)의 적을 소탕하였다. 7월말에 강화도로 옮긴 그의 부대는 이곳을 거점으로 최원이 거느린 관군과 협동하여 서울의 적을 무찌르는 전투를 여러번 진행하였다.

8월 그의 의병부대는 경기연해지방의 적을 물리친 뒤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올라가 양화나루에 적의 피수 도요도미의 죄상을 폭로하는 글을 써붙여 침략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다.

또한 비밀리에 결사대원들을 적들이 강점하고있던 서울성안으로 들여보내어 격문을 써붙이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나 싸울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무려 3만명이나 되는 인민들이 이 호소에 호응

하였으며 군수물자와 의복들을 모아 의병들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김천일의병부대의 활동은 서울인민들을 구출하고 경기지방인민들을 반침략투쟁에 결기시키며 경기연해지방과 강화도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593년초 강화도에서 나온 그의 부대는 김포쪽에 진을 치고 적을 방어하였고 해주산성전투이후 한강하류류역지역에 본거지를 정하고 서울주민들과의 연계밑에 서울탈환작전을 준비하였다. 그의 부대는 사람들을 서울성안에 파견하여 적정을 정찰하고 인민들을 투쟁에 동원하는 한편 충청도와 경기의 수군으로 하여금 한강하류인 로량을 차단하게 하고 사헌의 적을 기습하여 침략군을 많이 소멸하였다. 또한 한강하류연안에서 소규모의 매복전을 자주 벌려 400여명의 적을 살상하였다.

1593년 4월이후 그의 부대는 남쪽으로 쫓겨가는 왜적을 추격하다가 최경희, 황진 등의 부대와 함께 진주성을 방어하게 되었다. 당시 진주성의 방어는 잘 준비되어있지 못하였으며 병력도 모두 3 000명정도밖에 안되었다. 그러나 성안의 애국적인 민들과 군인들은 원쑤격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때 그는 도절제사로서 최경희와 함께 방어의 총지휘를 책임졌고 수성장의 임무는 황진이 담당하

였다. 적들은 우끼다의 지휘밑에 12만 3 000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진주성을 100리안팎으로 포위한 다음 6월 22일부터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안의 군대와 인민들은 외부와의 련계가 끊어진 어려운 형편에서도 수십배에 달하는 적들의 여러차례에 걸친 발악적인 포위공격을 물리치면서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히 싸웠다. 역량상 엄청난 차이로 성이 적들에게 함락당하게 되자 그는 전투지휘처였던 축석루에서 아들 김상건, 의병장 량산도 등과 함께 남강에 몸을 던져 최후를 마쳤다.

봉건국가에서는 그가 죽은 뒤에 문렬이라는 시호와 좌찬성의 벼슬을 주었다.

저서로는 《건재집》(4권)이 전해지고있다.

* * *

유모아

리 유

한 사람이 시장에서 탁구알만한 닭알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 《요렇게 작은 닭알도 닭알이라고 내다 파오?》 그러자 닭알을 파는 할머니가 말하였다. 《이보라구, 나는 몇십전 더 받겠다고 암탉이 난산으로 죽게 할 수는 없단 말일세.》

* * *

강력한 국력의 상징

얼마전 우리가 조선중앙력사 박물관을 찾았을 때였다. 반만년민족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중세실로 들어서던 우리는 고구려시기에 세운 광개토왕릉비(1:1모형)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광개토왕릉비는 천년강국이었던 고구려의 력사에서 나라의 령토를 크게 넓히고 민족의 위용을 높이 떨친 광개토왕(고구려 24대왕 391년-412년)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고구려에서는 지경을 넓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좋은 대왕이라는 뜻에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력사박물관 학술실 연구사 리상렬이 하는 말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광개토왕이 동명왕(고주몽 고구려시조왕)의 17대 자손으로서

아버지였던 고국양왕의 뒤를 이어 391년에 즉위하였으며 광개토왕의 이름과릉비는 강대한 국력을 지녔던 고구려와 함께 길이 남아있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다.

선조들은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 령토를 넓히였으며 국토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큰 공적을 이룩한 광개토왕을 높이 평가하여 그가 세상을 떠난지 2년이 지난 후인 414년 당시 고구려의 수도(오늘의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광개토왕릉비를 세웠다.

높이가 6. 34m인릉비에는 약 1 800자의 글이 새겨져있는데 광개토왕의 래력과 공적이 새겨져있으며 비문은 1단과 2단, 3단으로 되어있다.

리상렬은 《비문내용은 내외의 력사기록에는 전혀 없는 많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 고구려의 력사는 물론 당시 동방의 력사를 정확히 리해하고 체계화하는데서도 귀중한 자료로 됩니다. 그리고 비문에 있는것처럼 고구려는 동방의 많은 나라 및 종족들과 이리저리 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 대부분이 고구려의 징벌대상이였거나 보호대상이였다다는 사실은 당시 고구려가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서 높은 국력을 떨쳤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문의 문장에 대하여 력사가들은 <비문이 간결하고 소량하여 최고급의 력사책의 필

법과 같다.>고 하였으며 비문의 글씨에 대하여 여러 금석학자들과 서예가들은 <어느 글자나 다 방정엄격하고 질박순수하니 진실로 동방 제일의 보배>, <박력있고 웅대하니 실로 료동 제일의 고비>, <웅건한 글씨는 창해도 내리누를듯이 장중하다.>라고 극구 칭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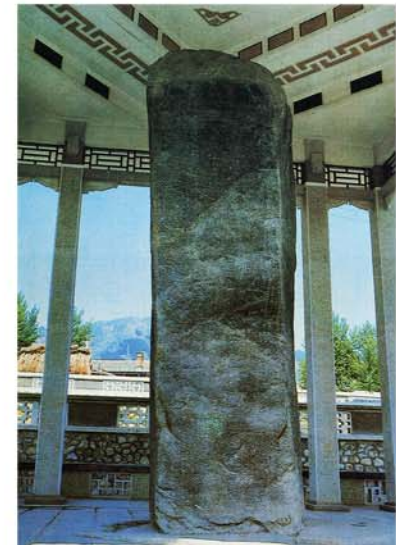
당시 여러 방면에서 령역확장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던 실정속에서 고구려가 대국의 체모에 맞는 웅장화려한 수도를 건설하고 선진문명국의 위세를 떨쳤다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고구려의 물질기술적토대와 경제위력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었는가를 알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9월 조국에서 고구려 광개토왕릉비건립 1 600돛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리상렬은 이런 의미깊은 말을 하였다.

《비석을 보면서도 느꼈겠지만 강대한 국력도, 슬기로운 민족의 력사도 탁월한 위인을 모셔야 빛을 뿌릴수 있다는것은 지나온 우리 민족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외세의 책동으로 빛을 잃었던 민족사를 과학적으로 새롭게 정립하여주신 절세위인들의 손길이 있어 이 광개토왕릉비도 오늘 자기의 력사적가치를 다시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정 린



고려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고구려유민의 후손인 왕건에 의하여 세워진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근 500년간 존재한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이다.

고려는 성립직후부터 동쪽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을 실현해나가면서 황제국가의 체모에 맞는 정연한 통치체제와 질서를 확립하였다.

고려의 중앙통치기구는 국왕의 중앙집권적권력과 고위관료층의 특권, 귀족민주주의를 최소한 다같이 보장하는 체제였다.

국왕은 황제폐하라고 불리우는 최고권력자, 최고통치자로서 독자적인 년호를 제정하고 후왕들을 선출하며 각종 명령과 지시, 문서를 조서, 칙서, 제서로 하는 등 여러 공간들을 리용하여 자기의 지위를 높여나갔다.

국왕밑에는 나라의 정책을 작성하는 2성복합체로서의 중서(내사)문화성과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상서도성으로 이루어진 3성과 최고행정집행기관인 상서 6부(상서리부, 상서례부, 상서병부, 상서호부, 상서형부, 상서공부) 그리고 국왕의 통치를 직접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중추원과 어사대가 있었다.

고려는 립법적회의기관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통하여 중

요한 정치군사적문제뿐아니라 국가의 관리운영과 인민들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규정을 토의결정하였다.

중앙통치기구에는 이밖에도 형벌, 재정, 군수품조달, 사신접대, 왕실봉사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관청들이 있었다.

고려봉건국가는 또한 지방통치기구를 통하여 전국을 다스렸다. 고려는 나라의 넓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봉건세력들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2중적이며 보충적인 지방통치체제를 갖추고있었다.

수도 개경(개성)을 방위별에 따라 5부 35방 344리로 구분하고 그 주변지역에 5부와 분리된 경기를 두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행정군사적으로 련결하는 중요한 통치단위인 5도와 량계에 안찰사, 감창사를 파견하여 감시통제하였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실제적인 통치는 계수관으로 불리우는 3경 4도호부 8목과 지방관이 파견된 령군, 령현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고려는 부수도인 3경과 군사행정단위인 4도호부, 지방고을인 8목 그리고 그 관할밑에 있는 령군, 령현들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들을 중속

시켜 통치하였다. 또한 군, 현밑에 말단행정단위인 촌, 리, 동과 특수행정단위인 부곡, 소, 장, 처, 향을 설치하였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을수 있게 잘 짜여있었다. 중앙군에 응양군, 룡호군의 2군과 좌우위, 신호위, 홍위위, 천우위, 감문위로 구성된 기본병력인 6위를 두었으며 수십만에 달하는 지방군을 5도와 량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하층신분들로 군사를 선발하고 군사지휘체제와 지휘기관, 전투편제를 정연하게 갖추었다.

고려는 이와 함께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역참과 봉수체제도 확립하였다.

고려의 중앙 및 지방통치체제와 군사제도는 후반기에 들어와 무신정권의 출현으로 봉건왕조가 문란약화되면서 그 기구와 명칭, 기능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고려는 자기의 독자적인 국가통치체제와 질서를 갖추고 겨레와 국토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강력한 통일국가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세상에 높이 떨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 철

민족의 자람이며 존엄

지금으로부터 17년전인 주체87(1998)년 8월 31일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대지를 박차며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위성은 4분 53초만에 정확히 궤도에 진입하여 지구주위 타원궤도를 따라돌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우주공간으로 내보냈다.

그때로부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날에 《광명성-1》호로부터 《광명성-3》호 2호기에 이르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는 사람들에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고도과학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우주정복의 열쇠를 확고히 틀어쥔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5월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일떠선 곳의 해발고는 비록 높지 않지만 이곳은 우리 민족의 존엄이 응축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국인민모두는 반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업적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력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자립적민족경제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으며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공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다져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첨단수준에 올라선 우리의 우주과학기술을 온 세계에 힘있게 파시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한차례의 실패로 고충을 겪고있는 과학자들에게 주눅이 들지 말라고, 사람은 밥을 먹고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한겨울의 혹한과 강설속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도록 지혜와 담력을 주시였다.

오늘 조국에서는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힘을 넣고있으며 이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다.

그것은 주체102(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올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고 우주개발법이 발표된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에는 우주개발의 목적과 원칙,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지위와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공화국의 우주개발의 목적과 원칙은 국가의 리익을 고수하며 우주과학기술을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으며 주체성과 자립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우주를 철두철미 평화적목적으로 개발하는데 있다.

우주개발법은 또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제우주기구, 다른 나라 우주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진행한다고 명백히 밝히였다.

그리고 우주개발기술과 우주활동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국가의 리익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목적에만 리용하며 우주기구발사와 관련한 통보와 안전보장, 사고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 등 우주활동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을 법적으로 담보하였다. 이밖에도 평등과 호혜, 호상보완의 원칙에서 국제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우주활동분야에서의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를 철저히 반대한다는 립장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쏘올리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된것은 우리 민족의 자람이며 민족적존엄의 파시이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조국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하여 포기할 조선이 아니다.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는것은 조선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상 식

**조선봉건왕조시기
벼슬하지 못한 량반
들의 호칭 몇가지**

과거(문과)에비시험인 소과에서 유교경전해석시험은 생원시, 시 짓기시험은 진사시라고 하였으며 그 합격자를 각각 생원, 진사라고 하였다. 생원, 진사들은 다시 분시시험인 대과에 응시, 합격하여야 벼슬을 할수 있었다.

과거(무과)에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 벼슬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선달 또는 출신이라고 하였다. 대과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선달과 생원, 진사들은 비록 벼슬은 하지 못하였어도 량반으로 행세하였다.

생원, 진사, 선달은 성다음에 붙여 원생원, 리진사, 김선달 등이라고 불렀다. 량반가운데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하였으나 불합격되어 벼슬하지 못한 사람은 늙어서도 유학이라고 불렀으며 죽은 후에는 학생이라고 하였다. 무덤비석같은데서 많이 볼수 있다.

* * *

선열들이 해방위업에 몸바친것은 하나된 민족을 위해서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환호성이 삼천리 강산을 진감하였던 감격의 그날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흐르고 세대도 여러번 바뀌었다. 하지만 애국선열들이 항일성전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며 그토록 갈망하였던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아직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조국의 남반부에서 일제의 강점 40여년이 미군의 강점 70년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해방은 성취되지 못하고있으며 외세가 강요한 장기간의 민족분렬로 하여 우리 겨레는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겪고있다.

남조선을 손아귀에 틀어쥔 미국은 북과 남의 대결을 조장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핵전쟁책동을 일삼고있다. 더우기 해를 두고 진행되는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도발과 침략전쟁연습이 이제는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러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처하고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를 뿌린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오늘의 비극적현실을 본다면 분노에 땅을 칠 것이다. 그들이 념원한것은 하나된 강토와 민족이였지 갈라진 조국과 겨레가 아니었다.

북남관계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임한다면 조선민족은 평화와 통일은 고사하고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렬된 강토에서 사는 단일민족이라는,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새 력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시대의 절규가 겨레의 심장을 쿵쿵 울리고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온 겨레가 주인이 되어 풀어야 할 자주적위업이다. 나라의 분렬로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있는것도 조선민족이며 조국통일을 누구보다 갈망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이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 조선민족이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조국통일은 그 누가 대신해줄수도 선사할수도 없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인것만큼 조국통일도 마땅히 조선민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족을 분렬시키고 통일위업실현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원흉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민족의 분

렬과 대결을 피하며 그것을 통해 침략적인 대조선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간계에 놀아난다면 북과 남은 언제 가도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외세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추동해나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계급, 계층이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사상과 제도, 리념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통일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민족은 남달리 자주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슬기로운 민족이다.

반만년의 장구한 기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겨레는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민족적존엄과 영예를 떨쳤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쳐물리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 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 10. 4선언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다. 력사의 모진 광풍도 조선민족의 자주정신과 역센 통일외지를 말살하지 못하였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모든 민족성원들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보람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뛰어드는데 있다. 그 어디에서 살건 애국의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조국통일대오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통일을 위하여 바친 인생은 력사에 길이 새겨지며 후대들의 기억속에 남게 된다. 분렬된 시대에 살면서 조국통일성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그가 누구이건 진정한 조선민족이라고 뱉뿔이 말할수 없다.

온 겨레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들의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통일애국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며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함으로써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통일조선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세월은 흘러도 침략자의 죄악을 지워버릴수 없다

올해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한지 105년이 되는 해이다.

결국 한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침략자, 강탈자의 죄악은 감소시킬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한일합병조약》은 조선이란 나라이름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조선민족을 일본의 철저한 노예로 전락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전대미문의 협잡문서였다.

일제가 떠든 《합병》은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의사에 따른것이 아니였으며 조선에 대한 강도적인 침략책동이였다.

조선봉건왕조정부는 이미전에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으로 하여 외교권을 일제에게 완전히 강탈당하였다. 그러므로 외교권을 잃은 나라가 외교권을 빼앗은 나라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조약을 체결할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1907년 6월 헤그밀사사건(조선의 외교대표로 인정받지 못한 밀사가 자결한 사건)이 일어나자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그해 7월초 조선봉건왕조정부에 《일본에 외교권을 위임한 귀국이 〈통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민것은 〈일한협약〉(《을사5조약》)의 정신을 유린》한것이라고 올려메면서 일본은 조선에 선전포고를 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일제는 국제법적요구를 완전

히 무시하고 군사적위협과 강제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날수 있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조선봉건왕조관리들을 군사적위협으로 굴복시켜 조약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1910년 5월말부터 7월초까지 2 600여명의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켰다. 특히는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에 많은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포위하고 황실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통제하였다. 일제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1910년 7월 데라우찌를 서울에 들이밀었다.

데라우찌는 군사적위협과 공갈로 당시 내각총리였던 리완용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을 강박하던 끝에 8월 22일 드디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병조약》은 순종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전권위임장도 없이 《체결》된 허위문서,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비법문서였다.

일제는 조약을 날조한 다음 조선인민의 반항이 두려워 그것을 즉시 발표하지 못하고있다가 한주일후인 8월 29일에야 공포하였다.

일제의 이 특대죄악에 대해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자기는 《병합조약》에 절대로 비준하지 않았다는 유언을 남겨 폭로하였다.

이렇게 국권을 강탈하고 군사적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

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 첫 시기부터 조선사람들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대동아공영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조작, 실시하고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각종 명목밑에 강압적으로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어갔다.

1919년 3월 1일 날로 횡포해지는 일제의 야수적폭거에 항거하여나선 인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총포사격을 가하고 도시와 마을들을 닦치는대로 불살랐으며 부녀자들을 릉육하고 애국적인 민들을 대량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100여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였으며 20여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의 하나인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한 범죄적만행, 조선문화재 파괴, 랍탈도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정신적, 물질적, 도덕적피해를 다 계산한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채로 기울여 갚아도 다 못 갚을 엄청난것이다.

온갖 죄악으로 빚어진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선인민의 반일항전으로 하여 무릎을 꿇고말았다.

본사기자 김솔III

무능이 몰아온 《빼라시대》

반박근혜, 반《정부》빼라가 한겨울에 내리는 눈마냥 온 남조선땅을 뒤덮고있다.

부산시청앞에서는 일본옷을 입은 박근혜를 야유한 풍자그림밑에 남조선을 망하게 할 너자라는 설명문을 단 빼라가 뿌려졌는가 하면 광주에서도 우와 같은 그림과 남조선정치판이 개판이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진 빼라가 살포되었다.

빼라들은 삼시에 길가던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있다. 빼라들의 내용은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급속히 전파되고있다.

특히 박근혜패당의 집권 2년이 되는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사이에 괴뢰청와대주변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빼라가 뿌려졌다고 한다.

빼라들에는 《국정원대선개입, 불법부정선거의혹 사실로 확인, 박근혜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년말정산폭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입니다.》, 《강탈해간 <대통령> 자리 돌려달라.》, 《부정선거, 당선무효,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글들과 함께 박근혜를 풍자한 만화와 사진들이 실려있다.

지난해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지던 빼라살포투쟁이 최근에는 남조선의 전지역규모에서 대중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고있다.

서울의 신촌, 강남, 명동과 부산, 대구, 인천, 경상남도 창원, 전라북도 군산을 비롯한 전지역에서 통치배들을 저주하는 빼라들이 살포되고 주민들에게 배포되고있다. 이와 같은 반박근혜빼라살포투쟁은 남조선땅을 뒤흔들고있다.

그 원인에 대해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유일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권> 집권 초반기인 지난 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할수 있다. 정보원 사건수사 및 남북수뇌상봉담화록 공개파문 그리고 지난해 <세월> 호참사 등 대형사건사고들이 줄을 지었다. 그러나 박 <정권>은 납득할만 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능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나온것은 지극히 당연한 리치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언론은 《래일 또 어디에선가 빼라가 살포될것이며 이것은 결국 박 <정권>의 명을 재촉하게 될것이다.》라고 예고하였다.

빼라살포투쟁의 격렬성에 대해 보수언론들까지도 《각지의 곳곳에서 박근혜를 비난하는 빼라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거리를 뒤덮고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나 볼수 있었던 민주화투쟁방식의 빼라들이 도시중심을 수놓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빼라시대》가 다시 등장하였다고 비명을 지르고있다.

본사기자 려 해

괴뢰패당을 전률케 하는 반박근혜빼라살포투쟁



미국의 식민지 남조선

미국이 남조선을 불법강점한 때로부터 70년이 되어온다.

40여년간의 일본의 군사적강점에 이은 미국의 이 지나긴 군사적강점은 남조선을 장장 한세기이상이나 제국주의식민지 지배밑에 놓여있게 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무너져 수많은 나라들이 억압의 쇄사슬을 벗어던졌지만 유독 남조선만이 오늘까지도 식민지명예를 그대로 메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불행과 수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 《대통령》과 《국회》, 《정부》라는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집행하기 위한 한갓 도구에 불과한것이며 남조선의 실제적지배자는 미국이다.

《정권》은 있어도 실권이 없고 《군대》는 있어도 통수권이 없으며 경제와 문화는 있어도 제것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가 바로 남조선이다.

나라마다 정치적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징표로 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대내외정책의 결정은 대양 건너의 백악관이 하며 《대통령》감투를 누가 쓰는가 하는것도 미국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역대 괴뢰《대통령》들은 취임하면 먼저 미국상전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고 예속관계를 확약하며 훈시를 받는것이 하나의 어길수 없는 관례로 되어있다.

미국이 주물러낸 《대통령》이 고보면 그 《정권》이 실시하는 정책이 자주성과 독자성이 결여된 사이비정책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대통령》이건 뭐건 불려다 마구 호통을 치고 지어 목을 때고 죽이는것도 서슴지 않고있으며 변질나게 남조선과 그 무슨 《정상회담》을 벌려놓고 자기들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고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요구를 내려먹이고있다.

남조선의 군통수권의 행사여부 역시 다를바 없다. 이미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 괴뢰군은 미군에게 군통수권을 통채로 떠맡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꼭두각시군대로 손꼽히고있다.

일찌기 미국의 한 출판물은 《미국의 납세자들은 남조선에 우리 나라의 투자를 지키는 훌륭한 번견으로 되는 군대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는 힘이다.》라고 쓴바 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남조선괴뢰군이 미국의 값싼 고용군,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것이 립증되고있다.

남조선처럼 미군의 주둔비용과 군사기지이전비용까지 섬겨바치는 곳은 없으며 가장 야수적인 범죄만행들을 저지른 미군을 상전으로, 할애비로 섬기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도 역시 세상에 없다.

남조선은 정치, 군사적으로 뿐아니라 경제적으로 외세에 예속되어있다. 지금 미국주도의 외래독점자본은 남조선의 큰 기업들과 은행들의 경우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좌우지하고있으며 해마다 수십억US\$

의 리득금을 걸어가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독점자본이 쓸어들어와 판을 치는 바람에 기업이 파산당하고 남조선인민들은 실업과 빈궁속에서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에서 700여만세대가 제 집이 없어 뜨내기살이를 하고 1 000여만명의 빈곤층이 삶의 막바지에서 살아가고있는것도 그리고 곳곳에서 각종 범죄행위가 성행하고있는것도 미국의 식민지에속경제가 낳은 비참한 현실이다.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두고서도 종주국의 언어를 써야 하는것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쓰이고있는 생활용어 1 643개중 조선말은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탕말로 되어있는 사실은 이를 립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언어전문가들은 《선조들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세계에 이름을 날렸지만 그 후손들은 무질서한 은어와 잡탕말로 우리 말을 무참히 파괴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이야말로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어 꼬물만 한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는 식민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온 겨레가 온갖 치욕과 불행, 고통의 화근인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강경수

《우리는 99%이다》

여기에 어느 한 나라 신문에 실린 글이 있다. 미국인들은 거의 모든 부유한 나라들과 일련의 가난한 나라들의 주민들보다 훨씬 건강하지 못하다. 어린이사망률에서는 47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산전산후휴가나 정규휴가에 대한 그 어떤 담보도 주지 않고있다. 또한 교육을 받는것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빛은 약 1조 3 000억US\$에 달한다. ...

이것이 바로 국제무대에 나설 때마다 자기 나라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표본》, 《만민평등이 보장되는 나라》로 떠들면서 《인권왕국》의 행세를 하고있는 미국의 모습이다.

신문에 실린 글은 2011년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난 대규모적인 시위때 내든 구호들중에 있던 《우리는 99%이다》를 다시금 새겨보게 한다. 그것은 1%밖에 안되는 극소수 부유층이 99%에 달하는 사람들이 창조한 물질적부를 차지하고 탕진하고있는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반항인것이다.

미국에서는 흑인들과 아시아계, 라틴아메리카계 주민들의 빈곤률이 백인들에 비해 훨씬 높다. 흑인들과 소수민족주민들은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최근에도 흑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이 새롭게 폭로되면서 또다시 대중적인 반인종주의시위가 벌어져 오바마정권을 전복케 하고있다.

오늘 미국에서 벌어지고있는 《인권》유린행위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가운데서도 미국의 고문행위는 《인권왕국》의 모습을 더욱 뚜렷이 보게 한다.

미국에서는 수감 또는 구류되어있는 사람들의

미국에서 경찰의 폭력행위에 항의하여 시위



인격이 모독무시되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법상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고문만행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동부미씨씨피교화소에서 강간과 욕설, 구타 등 폭력행위들이 그칠새없고 수감자들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현상이 일상사로 되고있다.》고 수감자학대행위를 폭로하였다.

미사법성 범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약 21만 6 000명의 감옥, 미성년교화소 수감자들이 성폭행을 당하였다.

정부의 묵인, 조장밑에 감행되는 야수적인 고문만행으로 하여 세계 총 수감자의 25%에 달하는 미국의 수감자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고있다.

수감자들에 대한 혹독한 형벌이 레상사로 되고있는 미국에서는 근 6만명이 오랜 기간 독감방에서 생활하고있는데 국제대사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리조나주에서 2 900여명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감되어있다.

미국의 가혹한 고문만행은 해외비밀감옥들에서 더욱더 파렴치하게 감행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는 보고서에서 미중앙정보국이 여러해동안 수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에게 질식감을 주는 물고문, 손을 머리우에 묶어놓고 불안한 자세에서 180시간씩 잠 안재우기, 흥문으로 물부어넣기, 판모양의 상자안에 200시간씩 가두기, 머리를 벽에 짓쫓거나 때리기, 기저귀를 채운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기, 성고문 등 인간의 사고력 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야수적인 고문을 가한데 대하여 공개하였다.

미국에서 인권이 무참히 유린말살되고있는것은 결코 고문행위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총구앞에 피흘리며 쓰러지는것, 한창 배워야 할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 학교에서 중퇴당하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잃고 자살의 길에 들어서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에서 인권유린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근로대중에 대한 침해를 법으로 삼고있는 미국에서는 억만장자들에게는 살인허가권이, 근로대중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침해권이 차례질뿐이다.

본사기자 조선일



고화

《쌍륙》

쌍륙은 놀이판과 말, 2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노는 겨루기 놀이이다.

쌍륙은 이미 삼국시기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것이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15세기초에는 다른 나라의 사신이 쌍륙을 요구하므로 보내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가 오랜 쌍륙은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어 남녀로소 할것없이 즐겨 놀았다. 쌍륙은 두사람이 마주앉아 놀수도 있고 여러명이 편을 갈라 놀수도 있다.

그는 자기의 많은 작품들에서 기생을 끼고 갖은 추잡한짓을 하면서 질탕거리는 량반들과 그앞에서 아양을 떨며 비위를 맞추는 기생들을 그리였다. 《쌍륙》에서도 화가는 놀이판을 펼쳐놓고 기생들과 세월을 보내는 량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화가는 자기의 작품들을 통하여 량반들의 퇴폐적인 생활을 폭로하였으며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는 자기의 많은 작품들에서 기생을 끼고 갖은 추잡한짓을 하면서 질탕거리는 량반들과 그앞에서 아양을 떨며 비위를

를 맞추는 기생들을 그리였다. 《쌍륙》에서도 화가는 놀이판을 펼쳐놓고 기생들과 세월을 보내는 량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화가는 자기의 작품들을 통하여 량반들의 퇴폐적인 생활을 폭로하였으며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 * *



개선문 본사기자 김영호

개선문은 항일의 20성상 장백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우리 조국을 강탈한 침략자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고있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7-582140
<http://www.naenara.com.kp>(조문, 료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